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2호 【루계 제25711호】 주체106(2017)년 7월 2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20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 단장인 루이스 엔리께 곤쌀레스 아꼬스따 사장이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 소식을 로씨야의 신문 《이즈베스찌야》, 엔떼웨TV방송, 베네수엘라의 텔레쑤르TV방송과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이 전하였다.

이란의 프레스TV방송, 브라질신문 《우 글로부》와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기념음악무용종합공연이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인떼르팍스통신, 신문들인 《이즈베스찌야》, 《로씨스까야 가제따》, 로씨야24TV방송, 엔떼웨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 《이르꾸쯔크블로그스포트.루》, 기네 국내, 국제방송, 7개민족어방송과 백두산제스꼬조선친선협회, 나이제리아에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신 소식, 그이를 모시고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수여식이 진행된 소식을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들인 《로씨스까야 가제따》, 《모스꼽스끼 꼼쏘몰레쯔》, 《자브뜨라》, 즈베즈다TV방송, 에호 모스크비방송, 스뿌뜨니크방송, 인터네트통신들인 로스발뜨, 가제따.루, 인터네트잡지 《렘쉬위》,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띄 모스크바》, 몽골의 몬짜메통신이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우와 같은 소식들을 전문 또는 요지로 상세히 전하였다.

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보시였다.

본사기자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천만군민이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 5돐을 뜻깊게 맞이하였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만방에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충정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백승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의 빛나는 실천이였으며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는 역사불변의 담보를 마련한 민족사적대경사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로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수령영생위업실현의 새 장을 펼치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우리 민족사와 더불어 영원히 흐르도록 하시였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공화국의 지도사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선군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전백승의 선군정치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통쾌하게 짓눌러버리시여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해주시였으며 탁월한 사상과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강국건설념원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우시며 사회주의 내 조국을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락원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특히 또다시 세계를 들었다놓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뜻을 이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천추도 범접 못하는 천하무적의 강국으로 일떠세워가시는 백두산장군의 숭고한 애국헌신과 철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승리의 장엄한 퇴성이며 미제의 끊임없는 핵공갈위협을 종식시키고 태양민족의 영원무궁한 미래를 담보한 민족사적대사변입니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는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고절세의 애국자,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우러러따르고있으며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높이 받들어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세계가 우러르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습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정세의 변화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원수님의 령도만을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세계적인 핵강국,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최후승리의 신심드높이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직으로 튼튼히 다져나가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과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운동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겠습니다.

우리 겨레의 운명과 행복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며 한결같은 념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의 충정의 한마음을 담아 선군조선의 무궁번영과 태양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6(2017)년 7월 17일 중국 심양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리자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대상건설에서 련일 혁신

216사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향군인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보다 훌륭히 꾸리기 위한 사업에 애국충정을 바쳐가고있는 216사단의 전체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대진군속도를 창조해나가고있다.

40개 호동의 살림집, 공공건물 벽체축조공사 완공

무봉로동자구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삼지연군을 산간도시의 본보기군, 표준군으로 꾸릴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애국충정의 날과 달을 이어가는 216사단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황해북도련대 돌격대원들은 70일 남짓한 기간에 40개 호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의 벽체축조공사를 결속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전투원들을 새로운 위훈에로 고무추동하는 직관관, 이동식속보관들이 전개되고 경제선동의 힘있는 북소리가 진감하는 공사장들마다에는 백두산영웅청년정신, 강원도정신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수천t능력의 세멘트창고건설과 페블공사를 보름이나 앞당겨 끝낸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지휘관들은 건설대상들의 기초굴착과 벽체축조를 위한 단계별공사계획을 높이 세우고 전투지휘를 결패있게 해나가고있다.

3대대 청년돌격대원들이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돌격전의 전렬에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불리한 지대지조건을 극복하며 수백㎥의 토량을 함마와 정대로 까내여 기초굴착공사를 최단기일안에 결속한 이들은 일렬계획을 110%이상 수행하면서 콩크리트치기와 벽체축조에서 날마다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하였다.

자재를 선행시키고 혼합물보장, 벽체축조 등의 작업공정별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킨 2대대와 4대대의 돌격대원들도 날마다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기술소대 전투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제재기의 전동기능력을 1.5배로 높이고 기둥골조를 리용한 다락방지붕공사방법 등 합리적인 시공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대상공사를 앞당겨 끝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청년전위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전투에 총매진하고있는 황해북도련대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공사성과는 끊임없이 확대되고있다.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건설 적극 추진

삼지연군을 혁명의 성지답게 훌륭히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베개봉일대에 풍력 및 태양빛발전소가 새로 일떠서고있다.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216사단 전력련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은 문명한 산간도시로 전변될 군의 아름다운 래일을 그려보며 발전소건설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이 안겨준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발전소기초굴착 및 콩크리트타임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해제낀 이들은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켜 단 이틀동안에 우리의 힘과 기술, 자재로 만든 풍력발전기 1호기의 설치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련대지휘부에서는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발전기설치공사를 앞당길수 있는 여러건의 합리적인 방법들을 도입하는 한편 발전설비들을 신속히 운반하기 위한 수송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해나갔다.

기계수단을 전혀 리용할수 없는 극악한 조건에서도 삼지연군중대의 전투원들은 카라로운 비탈길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오르내리며 공사에 필요한 물동운반을 선행시키였으며 기초굴착과 콩크리트치기작업에서도 매일 계획을 105%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함경남도, 자강도중대에서는 능률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철근가공과 휘틀조립속도를 1.5배로 끌어올림으로써 공사를 계획보다 한주일이상 앞당겨 끝내는데 이바지하였다.

건설장에 타오르는 립체전, 전격전의 불길속에 련대의 전체 돌격대원들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면서 발전기기둥과 본체, 날개설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베개봉에 자력자강의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새로운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열풍속에 돌격대원들은 풍력발전기 2호, 3호기설치준비사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현지보도반

집단적경쟁열풍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 앞당겨 완수

인민경제 여러 단위의 청년들

만리마의 기상이 나래치는 대고조격전장들마다에서 우리의 미려운 열혈청춘들이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다.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가 될 열의드높이 집단적경쟁열풍을 일으키며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인민경제 여러 단위의 청년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청년들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우리 시대 영웅청년의 값높은 영예를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는 만리마속도창조로 끓어번지는 경제강국건설의 전구들이 청년판으로 들썩이도록 여러가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였다.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수천척지하막장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쳐가며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대고조전군속도를 비상히 높이며 매일 계획보다 많은 석탄을 캐낸 송남청년탄광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은 부족되는 동발과 페루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굴진개소를 늘이고 새로운 전차제동장치를 창안도입하여 종전에 비해 버력처리능력을 1.4배로 끌어올림으로써 계획수행을 앞당겼다.

이들의 뒤를 따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불길높이 기업소안의 7개 청년돌격대들에서도 년간 굴진계획을 련이어 완수하였다.

웅진광산 차광수청년돌격대원들은 교대당 생산막장과 굴진막장을 종전의 1개로부터 3개로 늘이고 착암기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였으며 결사의 투쟁을 벌려 180m구간의 붕락된 갱복구를 단 13일만에 해제끼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광차 2대를 제작하고 80m의 구간에 운반미끄럼식설매를 설치하여 년간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중심어장을 타고앉아 직극적인 어로전투를 벌려온 룡암포수산사업소 《조선로동당의 딸-청년녀성영웅》호의 처녀어로공들은 어군탐지기에 의한 어장탐색을 앞세우면서 올해 수산물생산계획을 지난 6월까지 완수하고 만선의 배고동소리를 높이 울리였다.

경공업부문의 청년들속에서도 생산직앙양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천리마시대 청년들이 발휘하였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만리마시대의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갈 열의밑에 다기대, 다추운동과 집단적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온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청년들속에서 7명의 2년분, 60여명의 년간계획완수자들이 배출되였다.

과학기술을 앞세워나가는것을 기적창조의 원동력, 생산장성의 에비로 삼은 경성은하피복공장 청년작업반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으로 여러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들과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능률을 훨씬 높임으로써 년간계획을 152%로 초과완수하였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과 검덕의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정신으로 생산돌격전의 전렬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온 녕변, 박천건직공장, 만포방사공장의 청년들속에서도 3년분계획완수자들이 련이어 배출되는 혁신적성과가 이룩되였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이라는 민족의 대경사에 무한히 고무되여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는 온 나라의 청년전위들은 새로운 영웅청년신화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기 위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각지 탄광들에서

장마철생산준비에 힘을 집중, 성과 확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동원하여 굴진을 앞세우고 석탄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여야 하며 당면하여 장마철생산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 탄광들에서 장마철생산준비에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석탄공업성직으로 기본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350여개의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고 수백대의 뽐프를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9 500여㎡에 달하는 지수웅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또한 수백㎞의 운탄선, 운반갱배수로정리 등을 진행하여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전투목표를 달성하는데서 장마철생산정상화가 가지는 중요성을 대중속에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현장들을 직접 밟아보면서 계절적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생산을 내밀수 있도록 예견성있게 작전하고 패기있게 실천해나갔다.

순천지구 탄광들에서 물도랑정리를 말끔히 하여 벨트콘베아, 전차운반로선과 지탄장에 한방울의 비물도 스며들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놓았으며 북창, 덕천지구 탄광들에서는 갱안의 배수로정리를 깐지게 하여 탄차들의 운반능력을 높이도록 하였다.

함남지구 탄광들에서 지탄장을 비롯한 주요개소들이 사소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통신, 동력선들의 보수정비를 원만히 해놓았으며 개천지구 탄광들에서도 전동기와 뽐프를 제때에 수리정비하여 석탄생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지니고 경원, 강동, 안주지구 탄광들의 로동계급이 지난 6월말까지 지수웅정리를 끝낸데 이어 갱내물길정리와 지탄장물도랑파기를 집직으로 하여 무더기비에 의한 석탄류실을 막을수 있게 하였다.

장마철생산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은 각지 탄광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전에없는 석탄증산성과로 빛내일 열의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높이 날마다 석탄산을 높이 쌓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제방확장보강공사 결속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장에서

홍건도간석지 2단계건설장에 만리마속도창조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지난 5월 중순까지 3구역 1차물막이공사를 결속한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건설자들은 드센 공격전을 벌려 근 60일동안에 15만㎥의 막돌과 토량으로 4개의 제방을 확장보강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받들고 일군들은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서 앞세를 떼고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한편 방송선동, 직관선동 등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공사속도를 좌우하는 막돌과 토량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채석전투에서도 바다정복자들의 영웅적기상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보산, 장송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굴진공들이 여러건의 가치있는 창의고안들을 받아들이고 련속착암, 련속발파로 많은 막돌과 토량을 보장하면서 매일 공사속도를 2배, 최고 3배로 높여나갔다.

다사, 청강기계화분사업소의 운전사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세우고 불리한 운행구간에 알맞는 운전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날마다 3 000여㎥의 막돌과 토량을 실어날랐다. 예비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이곳 굴착기, 불도젤운전수들도 통전기재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책임져줌으로 하고 가동률을 높여 제방을 늘여나가는데 한몫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건설자들과 일군들은 고경찬영웅소대원들의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랑찬 대자연개조성과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빛내일 애국충정의 일념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높이 전력생산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찍음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2)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항일대전을 앙양에로 이끄신 불멸할 업적

조선혁명박물관을 쉬임없이 찾는 참관자들속에 섞여 우리는 12호실에 들어섰다.

우리의 참관은 중일전쟁의 발발을 보여주는 벽면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강사의 해설을 통하여 우리는 1937년 7월 7일 일제가 조작한 로구교사건에 의해 중일전쟁이 일어났으며 그로 하여 본격화된 침략전쟁과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정세를 파악할수 있었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기고만장하여 미친듯이 날뛰였다. 세계 5대강국의 하나, 3대해군국의 하나라고 자처하면서 만주를 침략하고 그것을 제소화하기도 전에 중국본토까지 삼키겠다고 욕심사납게 덤벼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진도상에 난관이 가로막아나설 때마다 나는 그앞에서 주저앉거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것을 에돌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였다.》

적배후교란작전, 9월호소문, 동해안지구를 혁명의 보루로, 전민항쟁준비를 위하여,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

매 벽면들의 벼우에 씌여진 글발들이 12호실의 사상주제적내용을 말해주고있었다.

강사는 적배후교란작전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벽면을 가리키며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우리 혁명의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주체26(1937)년 7월중순 백두산밀영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 지휘성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일제가 중국관내에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확대하는 때에 그리고 국제당의 일부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열하방면으로 원정할데 대한 무모한 로선을 집요하게 강요하고있던 시기에 열린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조선혁명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문제를 대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립장을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백두산밀영회의에서 론의된 문제들가운데서 핵은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적배후교란작전을 강화하며 전민항쟁준비를 다그치는것이였다.

백두산밀영회의에 이어 그해 8월 1일에는 장백현 초수란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 8월 12일에는 장백-림강현경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를 소집하시여 앞으로의 투쟁방략을 밝히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전시대의 유리함속에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중일전쟁발발에 대처하여 적배후교란작전을 적극 전개하자》와 《일제의 대륙침략전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앞당기자》를 볼수록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승리의 진로를 명시하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의 숭엄한 모습이 우렷이 안겨들었다.

우리는 벽면에 게시된 적들의 비밀문건을 통해서도 조선인민혁명군의 적극적인 활동방향에 대하여 잘 알수 있었다. 거기에는 초수만회의에서 새로운 활동방침이 세워진데 대해서와 부대를 개편하고 활동지역을 분담한데 이어 8월 29일 국치일을 계기로 만주의 주요도시들을 공격하고 국내에로 일제히 쳐들어갈것을 협의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여있었다. 이에 당황망조하여 적들은 그 대응책을 세우느라 북닥소동을 피웠다고 한다.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을 우러르며 다가올 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을 발휘하도록 투사들에게 방도를 가르쳐주시고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가슴깊이 절감하게 되였다.

강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의 적배후교란작전을 령활하게 조직지휘하시였다고 하면서 류다른 사진문헌앞으로 우리를 안내하였다.

적배후교란작전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성원들과 경위대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찍으신 뜻깊은 사진이였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돌아보시면서 이 사진에 있는 대원들의 이름을 한사람한사람 불러보시며 그때 자신께서 변장을 하기 위해 안경을 끼신데 대해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고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속에 조선인민혁명군 중대정치지도원 김영환동지, 련대장 박선봉동지, 경위중대장 리달경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이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서 선봉적역할을 할수 있었음을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뜨겁게 느낄수 있었다.

강사는 우리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적배후교란작전주요지역도앞으로 이끌었다.

주요지역도는 조선인민혁명군이 벌린 눈부신 적배후교란작전과정을 보여주고있었다.

수많은 전투들가운데서 참관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끈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참가하신 전투들이였다.

신방자전투, 무송-서강매복전투, 장백현 12도구전투, 림강현 6도구전투의 승리도 통쾌하였지만 쌍산자전투에 대한 강사의 이야기는 참관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주체27(1938)년 4월 어느날 6도구를 들이치고 이동하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쌍산자부근에서 추격해오는 적들과 전투를 벌리게 되였다.

적들은 6도구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려고 기마대를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전투에 들이밀었다. 이른아침부터 시작된 전투는 오후까지 계속되였는데 이때 적의 병력은 1000여명이나 되였다. 적들은 여러곳에서 모여든 경찰들과 일만혼합군으로 력량을 증강하여 집질기게 달려들었다. 가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속에 적들의 일부 병력이 아군의 익측뒤면을 위협하였다. 그때 거기에는 신입대원 7~8명이 있었다. 정황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곧 그곳 진지로 나가시여 몸소 기관총을 잡으시고 달려드는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시였다. 기관총의 련발사격과 함께 적들의 비명소리가 쌍산자의 하늘가를 흔들었다. 참관자들은 쌍산자전투의 잊지 못할 화폭을 전해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과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틀어잡으시고 적들을 소멸하신 기관총을 보며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적배후교란작전에서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적타격을 주고 안아온 빛나는 승리들은 우리 수령님의 불굴의 신념과 천신에 의해 마련된것이였다.

이런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있는 우리의 눈앞에 9월호소문이란 글발이 안겨왔다. 강사가 벽면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한자한자 읽어주었다.

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바라는 2천만 조선동포들이여! 일제와 싸우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신념과 백절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하에 일치단결하여 각종 형태의 투쟁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며 결정적인 반일항전으로 일제침략자들을 소탕하고 피바다에 잠긴 조국을 광복하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내용이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26(1937)년 9월 17일에 발표하신 **《전체 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우리 인민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투쟁을 강화해나가도록 불러일으키며 전민항쟁준비의 전략적방도를 밝혀준 강령이였다. 생산유격대와 로동자돌격대를 중심으로 전민항쟁준비를 확대하는것 역시 9월호소문에서 제시된 전략적방침이였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민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하여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국내에 파견하시였다.

강사의 해설에서 참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것은 마동희동지에 대한 내용이였다.

혜산일대에서 활동하던중 변절자의 밀고로 체포되였으나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은 마동희동지였다. 보름동안에 적들이 들이대는 48가지의 고문을 이겨낸 투사,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자기의 혀를 끊은 의지가 강한 혁명가의 투쟁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것을 새겨주었다. 마동희동지에게 국내정치공작임무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과 마동희동지의 개별사진과 그의 가족사진앞에서 우리는 쉬이 발길을 떼지 못하였다.

다음벽면에서 우리는 북부조선일대의 동해안지구를 혁명의 보루로 다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진데 대한 자료들을 볼수 있었다.

강사는 벽면에 전시된 자료들을 가리키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신흥지구를 비롯한 동해안일대에서 눈부신 활동을 벌린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벽면의 중심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주체26(1937)년 8월 신흥지구의 성지골에서 정치공작원 및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시고 지도하시는 모습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이 모셔져있었다.

벽면에는 반일애국단체인 신간회 총무부장이였고 단천로조지도성원의 한사람이였던 리주연동지, 애국렬사 리준선생의 아들 리용동지의 사진도 있었다.

강사는 이들이 걸어온 생활경력을 들려주었다. 특히 리용동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였다. 그는 망국의 한을 품고 떠나간 부친의 애국의 뜻을 잇자고 참으로 극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왔다. 일찍부터 중국관내와 동북, 쏘련 연해주일대에서 반일투쟁을 벌렸으며 당시 북청농조사건으로 체포되였다가 두문벌을 받고 감시속에 지은 선전문이 전하는 뜻깊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큰 종이에 씌여진 선전문에는 웃면에 백두산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장판과 조국강산에 새날이 밝아온다는 뜻을 담아 조선지도를 채를 치고 우는 새벽닭으로 형상하였으며 그옆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이 100개의 한자로 씌여있었다. 그밑단에는 《금란지계전》이 씌여있었다.

《금란계》라는 말은 합심을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같고 향긋함이 란초와 같다는 의미로 친구간의 두터운 정의를 이르는 말이다. 《금란지계전》이란 그 조직성원들에게 전하는 자료라는 뜻이다.

…

정통령은 우리의 김일성회장
김대장은 민족의 영재 하늘의 태양
북되도다 우리의 조선족
오매에도 그리던 당당한 기상
영생불멸이로다

우리는 다음벽면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천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해방을 앞당길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어떻게 다져졌는가를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사선의 고비를 헤치시고 신흥지구와 양덕지구를 찾고찾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생결단의 의지에 의해 전민항쟁준비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진데 대하여,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세차게 타오른 학습열풍,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였던 혁명적인 생활기풍, 혁명적관주의정신에 대하여…

12호실참관을 마친 우리의 앞에 항일혁명투사들의 조각군상이 안겨왔다. 행군을 다그치는 속에서도 학습에 열중하는 투사들,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피리를 부는 투사와 그 피리소리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남녀대원들의 형상에서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사에 새겨진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다.

백두의 공격정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장을 높뛰게 하여주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난 후 우리 혁명이 방어나 후퇴, 우회하는 방법에 매달렸다면 우리앞에 가로놓였던 난국을 타개할수 없었을것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고 억경을 맞받아 순경으로 전환시키는 혁명적전략을 항일대전의 실천속에서 빛나게 구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이 우리의 가슴에 차넘쳤다.

12호실을 나서는 참관자들의 락관으로 충만된 모습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억세게 심어주신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충정의 열의를 뜨겁게 절감하였다.

글 본사기자 림정호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을 만났다

【평양 7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루이스 엔리께 곤쌀레스 아프스따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김창광 조선중앙통신사 사장과 헤쑤스 델 아모레르난데스 주조 꾸바공화국림시대리대사가 참가하였다.

국산화는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오늘 우리앞에는 경제강국건설의 보다 밝은 전망이 펼쳐지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강국건설을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자면 국산화실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이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는 우리가 그처럼 짧은 기간에 미국의 심장부를 타격할수 있는 강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데 대하여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국산화방침을 명줄로 간직하고 설계와 제작, 발사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견본모방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투쟁기풍을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우리 식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의 단번성공으로부터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은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도 국산화를 철저히 실현할 때 경제강국건설의 높은 목표를 점령할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오늘날 국산화의 기치를 앞장에서 들고나가야 할 부문은 다름아닌 경제부문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의 야만적인 초강경제재로 하여 많은 애로와 난관을 겪고있는 경제부문에서 국산화는 더는 미룰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서고있다. 국산화이자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는 길이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길이다.

자립경제, 주체공업의 위력을 천백배로 강화하여 우리 당 병진로선의 위대한 생활력을 더욱 힘있게 과시하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비상히 높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강용한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자고 해도 국산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

물론 국산화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것이 국산화이다.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눈앞의 성과를 위하여 손쉽게 다른 나라의것을 본따거나 그에 의존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남의 구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침체와 파산의 운명에서 헤여나올수 없다. 당의 권위, 국가의 존엄, 인민의 안녕이 실린 주체탄들의 개발완성과정은 자기의 힘밖에 믿을것이 없다는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마음먹고 달라붙어 결사전을 벌린다면 얼마든지 국산화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립성과 주체성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업이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는 원료, 연료의 국산화이다. 원료와 연료는 생산과 건설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본재료, 기본동력이다. 경제건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구조를 갖추고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그 어떤 경제과동에도 끄떡없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할수 있다.

원료, 연료를 국산화하는것은 오늘의 현실적조건으로부터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금 세계적으로 자원이 점점 고갈되여가는것으로 하여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원료난, 연료난으로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지장을 받고있다. 자원을 대량적으로 수출하던 적지 않은 나라들도 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데로 방향전환을 하고있다. 세계의 여러 지역들에서 치렬한 분쟁들이 일어나고있는것도 중요하게 자원의 공급과 수요사이의 심한 불균형에 원인이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원료, 연료의 국산화가 적극 실현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가 생산되고 주체적인 마그네샤크링카생산공정이 확립되여 인민생활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천연흑연을 가지고 만든 질좋은 제품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기간공업뿐아니라 경공업부문에서도 우리 나라의 원료로 만든 가방과 이불, 갖가지 식료품들이 짱짱 생산되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당의 국산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원료, 연료를 우리의 자원으로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할 때 자립경제의 위력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될것이다.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강국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나라의 생산력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곧 기술수단의 현대화이며 여기에서 자재, 설비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하다. 남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거나 다른 나라의 설비를 그대로 가져다놓는 식의 현대화로써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수 없다. 남의 집에 있는 금덩이보다 제 집에 있는 쇠덩이가 더 소중하다는 애착심을 지니고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현대화를 다그쳐야 경제기술적자립성을 강화하고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울수 있다.

국산화는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서 매우 심리적이며 경제적효과성이 높다. 인민경제의 현대화는 첨단설비와 자재, 자금이 많이 요구되는 방대한 사업이다. 자재, 설비의 국산화는 설비수입에 필요한 많은 외화를 절약하면서도 자체의 과학기술적잠재력과 자립적공업에 의거하여 자재, 설비를 해결함으로써 최대한의 경제적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기술경신, 설비경신주기가 더욱더 짧아지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보다 높은 현대화의 목표를 세우고 설비경신을 주동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한다.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과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곡산공장을 비롯하여 최근년간에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만든 첨단설비들로 현대화되고 인민경제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한것은 우리 당의 국산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기때문이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주체의 신념과 의지, 무엇을 하나 만들어내도 최상의것을 최고의 수준에서 우리 식으로 창조해내려는 만만한 배짱이 전투장들마다에 세차게 나래치기에 경제강국건설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비상히 강화될것이다.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와 봉쇄책동을 짓부시고 경제강국건설의 승전포성을 높이 울리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국방력강화조치를 《위협》과 《도발》로 걸고들면서 사상 최악의 제재와 압박소동에 매달리고있다. 한방울의 연유, 하나의 기계설비, 첨단제품은 물론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것을 말려 경제적으로 완전히 질식시키고 병진의 힘찬 진군을 어떻게 하나 멈춰세워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억측도 없고 외부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건설에서 비약을 일으키고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자면 어떻게 하나 국산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 국산화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봉쇄책동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선의 방도이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우리의 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방해책동에도 끄떡없이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적들의 압살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력자강으로 더욱 억세게 떨치고 일어나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것은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이다.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무섭게 솟구쳐오른 주체탄들과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온 행성을 진감시키였다.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하늘을 찌를듯이 초고층, 고층살림집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려명거리는 원쑤들의 대갈통을 자력자강의 철퇴로 후려치며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하며 최상의 문명을 우리 식대로 보란듯이 창조해나가는 조선의 기상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국산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해나감으로써 경제강국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윤철희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

피현군 하단리당위원회에서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당세포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주별, 월별로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독보와 해설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특히 당보에 실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혁명활동보도들과 사설, 정론, 혁명일화 등 주요기사들을 빠짐없이 해설선전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일군들의 화선식정치사업은 대중을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얼마전에도 들끓는 현장에 나간 리당의 한 일군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조국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대주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쳐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선군혁명령도업적에 대하여 감명깊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더 잘 받드는 길에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최후승리가 있다고 격조높이 해설하였다.

이날의 해설사업은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참신하게 진행되는 위대성교양사업을 통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더욱 깊이 새겨안은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앙곡중산으로 받들어갈 불같은 일념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로동통신원 최원화

정 론

조국이여, 그대에게는 미더운 전초병이 있다

만리마대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는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위훈창조의 숨결을 전한다

상원! 전진하는 조국의 보폭속에 언제나 힘차게 울린 부름이다.

이 땅에 숨을 이룬 무수한 창조와 건설의 기념비들과 행복의 요람들에 밀루리처럼 스며있는 그 부름 만리마대진군의 주로우에 또다시 긍지높이 메아리친다.

지난 6월 불꽃튀는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으로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우리 당은 이 기업소를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로 내세워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위업을 맨 앞장에서 받들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추켜들고나가야 합니다.》

상원의 로동계급,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남다른 사연을 안고있는 일터이기에 그 이름 시대의 앞장에 꺼질줄 모르는 불길처럼 타번지고 커져이는 기발처럼 천만을 격동시키는것인가.

* *

상원천기슭에 정히 모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필비앞에 우리는 서있다.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는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전초병이 되여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동지들을 굳게 믿습니다.

김 정 은

2012. 3. 28》

시대를 격동시키고 천만을 고무하는 상원의 영웅적위훈의 밑뿌리, 그 불타는 심장과 심장에 고동치는 고귀한 넋이 여기에 다 빛발친다.

우리 당의 원대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받드는 전초병,

여기에 상원의 지위가 있다. 조국번영의 진군로우에 변함없이 기발들고 나아가는 기적의 땅, 상원의 진면모는 바로 이것이다.

전초선에 선 병사를 가리켜 전초병이라고 한다. 전초병이 든든해야 전선이 든든하다. 전초병의 기상이자 전선의 기상이고 전초병의 위용이자 전진하는 대오의 기세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기치를 높이 든 이 땅에서 그 전초병들은 누구들인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이 필요하듯 창조와 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먼저 찾는것이 세멘트이다. 현대적인 공장들과 새 거리들을 더 많이 일떠세우자고 하여도 세멘트가 많아야 하고 문명강국의 래일을 앞당기자고 하여도 세멘트가 많아야 한다.

상원은 결코 하나의 지명만이 아니다. 우리 조국의 거창한 건설대전의 승리가 마련되는 첫 지점, 당이 펼친 건설의 대번영기와 잇닿아있는 출발선이다.

기적에서 더 큰 기적에로! 상원이 새겨온 이 증산돌격전의 보폭은 바로 건설의 최전성기, 대번영기를 펼치는 조국의 숨결이고 맥동이며 그 과감한 진군의 뢰성이다.

조국청사에 자랑찬 전변의 해, 승리자의 해로 기록된 당창건 70돐이 되던 2015년은 상원로동계급이 절사의 각오로 떨쳐일어나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기적의 해였다.

당 제7차대회가 열리고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충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가 련속공격전으로 빛나게 기록된 2016년은 또 얼마나 격동적이였던가.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축하전문을 더 힘찬 생산돌격에로 부르는 혁명의 수뇌부의 나팔소리로 새겨안고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한 그 전해보다 더 많은 세멘트증산으로 당 제7차대회를 절사보위하고 만리마의 나래를 편 조국을 억세게 떠받든 전초병들.

만리마대진군의 발구름소리가 강산을 진감하는 올해에도 상원은 시대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첫달부터 계획보다 더 많은 세멘트를 증산한 이들은 지난 6월 8일까지 상반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고 6월 30일까지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수만t이나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하였으며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또다시 돌파하는 경이적인 기적을 창출하였다.

얼마나 미더운 전초병들인가. 진정 얼마나 장하고 용감한 창조의 전위, 건설대전의 기수들인가.

이들이 안아온 세멘트증산성과도 귀중하다. 그러나 자기들의 발걸음에 조국의 전진속도가 달려있다는 피더운 자각으로 심장불태우며 진군의 기발 더 높이 들고 폭풍처온 용감한 돌격정신, 절사의 공격정신이야말로 천만을 분발시키는 오늘의 《강선의 봉화》이며 시대의 불길이다.

부강조국건설의 전초병들인 상원의 로동계급은 심장이 크고 어깨이 보통이 아니다. 해놓은 일마다 잠도리가 다르고 담력도 이만저만 아니다. 상원석회석광산의 선군갱은 볼수록 놀라웁다. 산허리를 따라 굽이굽이 뻗어있던 운광길을 없애고 아예 산을 수직으로 뚫어 만든 올리갱, 높이가 백수십m나 되는 이 갱으로 광석을 산떨의 파쇄장까지 떨구고 그것을 자체로 만든 전동차가 단 16분만에 수십t씩 실어낸다. 연유도 차부속도 부족하던 그때 이들이 사생결단의 의지로 뚫은 직선주로, 그것은 바로 전초병의 앞길에는 에돌 길이 없다는 상원로동계급의 담력이고 배짱이며 결사의 의지가 아니던가.

전초병의 눈은 언제나 멀리 앞을 내다본다. 상원로동계급은 무엇을 하나 해놓아도 눈앞의 성과만이 아니라 전망적인 세멘트증산을 생각하며 통이 크고 대담하게 창조한다. 명당지구라는 그 이름처럼 상원은 세멘트생산에 필요한 석회석과 물원천이 풍부하고 수송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그런 상원이 후손만대 물려줄 세멘트생산의 명당지구로 더욱 호젓하게 전변되고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실어오던 부원료도 지금은 상원땅에서 찾아내여 마음껏 쓰고있다. 세멘트증산에 절실히 필요한 부가물도 이들은 자기 고장에서 찾아냈다.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는 속에서도 하나의 공장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1호계렬생산공정개건을 진행하여 소성로의 일생산능력을 높인것도 기적이지만 현대적이면서도 능력이 큰 파쇄장을 꾸려놓아 증산을 담보한것도 대단하다.

자력자강의 전초병, 이것이 상원로동계급의 또 하나의 이름이다.

이들이 최고생산년도수준을 련속 돌파해온 나날이 어떤 시련의 시기였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있다. 우리의 질풍노도와 같은 전진에 집결한 원쑤들이 야만적인 제재에 매달리며 상원의 세멘트생산정상화에도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였다.

상원이 추호라도 멈춰섰던가. 한순간이라도 동요하였던가.

《자력자강》,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 《만리마속도창조》…

높이 솟은 예일탑들과 싸이로들, 억센 기둥들이 그대로 기발대가 되여 솟아있는 상원은 거대한 붉은기와 같다.

여기서는 어디 가나 제일먼저 들을수 있는 이야기, 가슴벅차게 새길수 있는것이 자력자강의 위훈이다. 우리가 들어선 여기는 내화물공장이다. 이 공장에 또 하나의 이름을 단다면 《만리마시대 밀림속의 병기창》일것이다. 이전시기에는 한해에 수천t의 중유가 있어야 했던 내화벽돌생산을 지금은 무연탄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여 팡팡 내민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연료에 의한 세계로 바꾼 내화벽돌소성공정에서 각이한 용도의 내화벽돌들이 쏟아져나오는데 마치 진짜연길폭탄을 보는것 같다.

중유라는 말이 흔적조차 사라진 상원에서는 소성로의 착화도 미분갈탄으로 하고있고 대형분쇄기들에 없어서는 안될 쇠알도, 설비제작과 수리에 필요한 용접봉도 자체로 만들어 리용하고있다.

어느덧 상원은 모든 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것이 습벽으로 되였다.

로동계급의 문화를 꽃피우는데서도 상원은 첫자리이다. 올해 봄에 진행된 제5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에서도 상원은 특별상을 수여받았다. 해마다 진행되는 불멸의 꽃축전들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재부는 땅속의 자원이나 억대의 재력이 아니다.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가진 창조의 대군이 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고 세계의 첨단에 남먼저 올라설수 있다.

우리에게는 상원의 로동계급이 있다!

이것은 상원의 로동계급과 같은 힘있고 용감하며 미더운 전초병들을 가지고있기에 이 땅에 건설의 대번영기가 끝없이 이어지리라는 우리 인민의 긍지이며 확신이다.

불길이 타오른다. 상원의 놀라운 기적의 비결을 말해주며 낮이나 밤이나 활활 타오르는 소성로의 불길.

상원을 안다는것은 이 불길의 의미를 안다는것이다.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추호도 꺼질줄 모르는 이 불길의 열원을 안다는것이다.

그리움의 불길,

열기가 풍기는 소성로앞에 정히 보존된 사연깊은 자리에 마음얹는 우리에게 소성로의 불길은 그렇게 안겨온다.

벌써 수십년전 상원땅에 나라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며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현대적인 대규모세멘트생산기지를 일떠세워주시고 몸소 명예지배인이 되신 우리 장군님께서 친히 나오시여 소성로불길을 가늠해보시던 못 잊을 그 영상, 우리 장군님과 상원로동계급의 혈연의 력사는 사회주의대건설의 나날에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폭풍우속에서도 억세고 뜨겁게 이어져왔다.

《상원의 력사는 절세의 위인들과 맺어진 혈연의 력사입니다. 그 혈맥이 없다면 상원도 없을것입니다.》 상원로동계급의 투쟁을 형상한 연극 《혈맥》의 창조자들이 작품의 제목을 달게 된 경위에 대해 하던 말이다.

피줄기가 끊기면 생명유기체의 존재도 끝난다. 우리 장군님 품에 운명의 피줄기를 잇고 성장해온 상원로동계급은 어떻게 오늘도 자기들의 긍지높은 위훈의 자서전을 변함없이 써나가고있는것인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명예지배인으로 모신 상원의 로동계급, 이처럼 큰 긍지, 가슴부푸는 자부가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으로 피눈물의 12월에 상원의 로동계급을 한품에 안아주신 우리 원수님이시다.

수십년간이나 명예지배인이 되시여 기업소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신 우리 장군님처럼 부강조국건설의 큰 몫을 맡아온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를 언제나 중시하시며 마음속 첫자리에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난 수년간 우리 원수님께서 기업소에 주신 강령적가르치심은 무려 수백차에 달한다.

이 땅을 인민의 모든 꿈 이루어지는 만복의 락원으로 꾸리실 숭고한 념원을 안으신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 언제나 상원이 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제일먼저 찾는 상원의 로동계급!

상원의 세멘트생산자들의 가슴속에 천만금을 준대도 아니 바꿀 삶의 자부로 간직된 이 긍지는 바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진군길에서 우리 원수님 안겨주신 상원의 가장 큰 자랑이고 영예이다.

우리 원수님 새 거리의 이름을 지으시면서도,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치실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도 제일먼저 불러보신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조국땅 방방곡곡에 맥동치는 거창한 창조의 숨결을 안아보실 때에도, 온 나라를 새로운 창조대전에로 불러일으키실 때에도 마음속에 먼저 안아보신 그 모습들이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때의 이야기는 새길수록 가슴젖는다.

뜻밖의 재난을 당한 북변의 인민들생각으로 잠못 드시던 그때 우리 원수님께서 제일먼저 생각하신 사람들은 누구였던가.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였다. 이번 큰물피해복구전투에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가 기치를 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내가 큰물피해복구에 필요한 세멘트를 생산보장할것을 부탁하였다고 전해주어야 하겠다고, 그러면 그들이 무조건 생산보장할것이라고 그리도 뜨겁게 말씀하신 우리 원수님,

온 상원땅에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다. 명명이였다한들 그처럼 상원로동계급의 심장을 세차게 울리였으랴.

우리 원수님의 부탁, 그것은 진정 우리 로동계급을 뜻과 정을 함께 하는 미더운 전우로 여기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이고 고결한 동지의 사랑이였다.

상원이 걸어온 기적창조의 날과 달들은 우리 원수님의 이처럼 뜨거운 믿음의 세계와 하나로 이어져있다.

언제인가 이들이 맡겨진 계획을 수행하면서도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증산투쟁에 자진하여 떨쳐나섰던 일이 있었다. 우리 원수님 얼마나 마음흐뭇해하시였던가. 정말 용타고, 간단한 말이 아닌데 좀 고생스러울수 있다고 하시며 우리 나라 속담에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우리가 좀 고생하면서 힘든 고비를 이겨나가면 사회주의강국건설은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라고 뜨겁게 고무해주시던 우리 원수님,

누구나 상원의 세멘트증산소식에 기쁨을 금치 못할 때에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 생산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세멘트를 생산하여 여러 단위들에 제때에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마음은 살을 베어서라도 그 기업소를 도와주고싶은 심정이라고 그리도 불덩이같은 진정을 터치시던분,

유기체의 피줄기에 흐르는것이 생리적인 피방울이라면 우리 원수님과 상원로동계급사이에 맺어진 강철의 혈맥에 맥동치는것은 믿음과 충정이였다. 우리 원수님께서는 상원로동계급을 군제 밑고 용대한 건설의 작전도를 펼치시고 상원로동계급은 온넋을 다 바쳐 절사관철해온 믿음과 보답, 사랑과 충정의 자욱자욱이 바로 이 땅에 폭풍치온 건설의 대번영기이고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실록인것이다.

그렇다. 상원이야말로 우리 당을 굳건히 받드는 억센 밑뿌리, 드놀지 않는 신념의 성새이다.

저 북변의 백두산기슭에서 우리 청년들이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도 든다고 웨치며 신념의 언제를 쌓을 때 상원로동계급은 원수님 믿음이면 하늘끝에라도 세멘트산을 쌓겠다는 결사의 각오로 심장 불태우며 당이 준 명령을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완벽하게 관철하였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현장을 떠날수 없소.》, 이것은 오늘도 소성로의 동음속에 들려오는 한 로동자의 목소리이다. 모진 병마와 싸우면서도 당이 준 명령을 관철하는 전투현장을 떠나지 않은 그, 혹시 소성로곁을 떠나 침상에 누워있었다면 육체적생명은 연장했을지 모른다. 허나 그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다. 살아서는 소성로의 불길이 되고 죽어서는 한줌 세멘트가 되여서라도 원수님 믿음에 기어이 보답하리라!

그렇게 생을 마친 상원땅의 한 당원의 심장이 박동이 미처오는 소성로의 동음에 귀기울이면 들려온다. 그대가 크나큰 심장이라면 이 몸은 그 품에 뛰는 피방울, 마지막 한방울 다할 때까지 높뛰는 고동을 더해주리라는 상원로동계급의 심장의 노래, 이 시각도 잠들줄 모르는 소성로와 들끓는 채광장, 깊은 막장에서 상원의 로동계급이 터치는 신념의 토로, 충정과 보답의 세찬 박동이 가슴을 팡팡 두드린다.

상원의 로동계급처럼 창조하고 투쟁하자.

당을 따르는 신념의 열도도 상원로동계급처럼 억세고 뜨거워야 하며 당의 부름에 심장을 바쳐 화답하는 충정과 보답의 세계도 그처럼 맑고 깨끗해야 한다.

나의 일터는 내가 지켜선 조국이다! 이것이 상원로동계급의 모습속에 어려오는 불덩이같은 진정이다.

상원전구, 이들은 자기들의 일터를 그렇게 부른다. 포성은 울리지 않는다. 허나 이 땅의 모든 초소와 일터들은 우리의 전진을 한사코 가로막으려는 원쑤들과의 포성없는 결사전이 벌어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들이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 자기가 다루는 기대앞에서 조국을 보고 조국의 숨결을 느끼며 자기가 하는 일을 언제나 조국이라는 신성한 존재와 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상원의 로동계급이다.

우리는 깊은 밤, 이른새벽 누가 보건말건 기대와 설비들을 지켜 랑심의 순회길을 걷는 상원로동계급의 모습을 참으로 감명깊게 보았다. 세멘트는 결코 한두사람의 로동의 결과물이 아니다. 조합원료, 소성, 분탄, 보수직장은 물론 탄광과 광산을 포함한 기업소의 모든 종업원들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안아내는 랑심의 결정체, 애국의 소중한 열매이다.

어기서는 불의의 정황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소성로의 정상가동을 보장한것과 같은 위훈들이 무수하다. 그러나 그들은 고지를 사수한 병사가 그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는것처럼 자기들도 조국앞에 지닌 로동자의 의무를 수행했을뿐이라고 생각한다. 상원로동계급이 안고 사는 이 숭고한 애국의 본분, 공민의 참된 랑심을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천만의 애국의 심장을 밑뿌리로 하는 조국이라는 거목이 더 무성해지고 너와 나 애국의 마음합쳐 안아오는 창조의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며 원쑤들의 미친듯 한 발악속에서도 집단주의위력에 기초한 우리의 만리마가 더 억센 나래펴고 질풍노도친다.

상원에는 또 하나의 특이한 풍경이 있다. 설비애호관리열풍이다.

설비의 가동실적이자 생산실적이라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진심로 당에 충실하고 만리마기수가 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의 무기인 설비에 진정을 쏟기마련이다.

수십년을 가동하였지만 모두 새것같은 상원의 생산설비들, 무려 수천대를 헤아리는 그 설비들이 하나같이 번쩍이며 만가동, 만부하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는 광경은 참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와 기대는 한몸이다, 설비를 나의 살붙이처럼! 자나깨나 더 많은 세멘트증산을 생각하는 상원사람들의 마음속진정은 이렇다. 그 마음을 안고 일터에서는 물론 집집의 창가에서 울리는 이야기도 아버지가 맡은 설비, 딸이 돌보는 기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관리하고 새것처럼 만들겠는가 하는 애국의 속사임이다. 책임일군으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제일 깊이 관심하는 문제도 설비관리이고 기업소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첫번째 위훈자도 다름아닌 설비애호관리에서 특출한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다.

땀을 속일수 없듯이 설비를 속일수 없다. 진정을 바친것만큼 증산의 열매를 주는것이 기계설비이다. 지난 1월 1호소성로를 만부하로 돌려 조업후 최고가동실적을 기록한 이들은 크링카분쇄기도 계획가동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가동시키는 놀라운 화폭을 펼쳤다. 그것이 곧 세멘트증산의 높이라는것을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소성로의 불길이 상원로동계급의 심장의 불길이라면 그것이 언제나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 위력한 밑불이 있다.

언제나 로동자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고 위훈창조에로 떠미는 기업소책임일군들이다.

기적을 낳는 어머니는 대중의 정신력이라고 하신 우리 원수님의 말씀은 이들의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이 아파하는 문제,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주는 사업에 일군들이 전력하고있다.

후방공급사업을 전적으로 당위원회의 몫으로 여기고 덩지큰 후방기지를 꾸려놓고 누구나 감탄하는 고리형순환체계로 축산과 남새, 양어와 버섯재배를 힘있게 밀고나가는것 역시 상원의 이채로운 풍경이다. 영양제식당들과 정양소들에서는 혁신자들을 위한 푸짐한 식탁들이 마련되여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업소가 책임지고 종업원들의 병감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니 로동자들은 자나깨나 세멘트증산에 전념하고있다.

누구나 외우는 샘물자랑 또 얼마나 좋은가. 석회암지대에서 사는 상원사람들에게 수질이 좋은 샘물을 먹이자고 밭이 닳도록 여러곳을 답사하여 샘줄기를 찾아내고 한겨울에 관을 놓여 맑은 샘물이 상원지구에 흘러들게 한 일군들의 그 진정, 그에 감동된 한 설계가가 샘물공급소건물설계안을 일군들의 멸사복무정신이 피워올린 한편기 꽃송이로 형상하여 내놓았다.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생산자대중을 위한 멸사복무의 주인공, 위훈창조의 밑불이 될 때 만리마의 나래편 조국땅 어디서나 기적창조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른다.

그 이름도 긍지높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이여!

누구나, 어디서나 상원의 로동계급처럼 만리마시대의 창조의 기수, 위훈의 전초병이 되자.

오늘 우리의 초소와 일터들에 높이 울리는 증산의 동음은 전진하는 사회주의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는 힘찬 뢰성이고 고립압살에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미리우에 퍼붓는 통쾌한 불벼락과 같다.

폭풍이 막아서고 격랑이 몰아쳐도 당을 따라 억세게 걸어온 신념의 길, 창조와 위훈의 한길을 최후승리의 그날까지 더 힘차게 이어가자.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방 성 화, 지 원 철

배수로, 승수로, 강하천정리에서 혁신

각지 농촌들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에서 기어이 풍작을 부를 일념안고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력량을 집중하여 단 한주일동안에 1 000여km의 배수로, 승수로, 강하천을 정리하고 수많은 관개 및 배수시설들의 보수정비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의 농촌경리부문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큰물과 비바람피해를 입을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황해남도에서는 저수지들의 수문과 권양설비들에서 불비한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되치하였으며 수백km의 배수로치기를 진행하여 물길바닥을 현저히 낮추었다.

은률, 신천, 신원, 배천군을 비롯한 여러 군의 농촌들에서 비바람에 의해 곡식이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받둘레를 따라가며 세끼줄을 든든히 쳐주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포전들에 돌림물길들을 째주어 무더기비가 내려도 물이 고이지 않게 하였다.

평안북도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켰다.

도에서는 비물이 많이 고이는 곳들에 양수설비들을 집중배치하도록 하고 도랑들을 잘 가서 내여 산물짜기에서 내려오는 비물에 의해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류실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웠다. 정주시와 철산, 선천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수만㎥의 토량을 처리하고 2만여㎥의 장석쌓기를 진행함으로써 해안방조제를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게 보강하였다.

한평의 땅, 한포기의 농작물도 큰물과 비바람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황해북도안의 근로자들은 백수십대의 양수기를 비롯한 고인물빼기시설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마무리하고 수많은 관개시설물과 배수구조물들을 보수보강하여 농경지와 농작물들을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송림시와 황주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의 농촌들에서는 양수기운전공,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것과 함께 로력과 기계수단을 총동원하여 물길정리와 배수로치기, 후치질을 질적으로 하였다.

지력자강의 정신으로 평안남도의 농업근로자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한주일동안에 수십km의 강하천제방들을 보수정비한데 이어 110여km의 배수로치기와 양수장들의 설비수리를 말끔히 끝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의 농장들에서도 농경지들이 큰물에 의해 침수되지 않도록 논밭머리도랑과 사이도랑을 잘 가서내고 배수양수설비들을 만가동시킬수 있는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놓았다.

【조선중앙통신】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

가마포수산사업소에서

지난 15일 가마포수산사업소에서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100.2%로 빛나게 완수하였다. 이것은 몇해전에 비해 5배를 릉가하는 높은 실적이다.

다른 단위들보다 어장조건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다. 그렇다고 고기배의 척수가 크게 늘어난것도 아니다. 하다면 성과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입니다.》

우리와 만난 김성철지배인은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당의 수산정책관철에 떨쳐나선 어로공들의 앙양된 열의와 함께 서해의 소문난 물고기잡이명수인 한정철기사장의 창조적인 일본새와 헤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그의 이야기는 포구와 멀리 떨어진 먼바다에서 어로전투가 벌어지는 수산부문의 특수성으로 하여 기사장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여야 보다 높은 어획고를 기록할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었다.

기사장 한정철동무는 말보다 실천적성과로 당을 받들어나가는 일군이다. 그는 과학수산이자 물고기잡이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걸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서해의 소문난 물고기잡이명수이다.

한정철동무의 어로전투조직과 지휘과정에는 여러가지 본받을만한 점이 있다.

실례로 어장탐색과정을 들수 있다. 서해의 모든 수산사업소들에는 수산성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바다물온도자료가 매일 전송된다. 각 수산사업소에서는 이렇게 전송된 바다물온도자료를 놓고 물고기들의 적수온도에 맞는 어장을 선택하여 어로전투를 벌린다. 하지만 한정철기사장은 바다물온도전송자료에만 기초하여 어로전투를 지휘하는것이 아니라 여기에 수십년동안 수집한 수역별어획량, 바다밑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어장탐색의 과학성을 더 높이고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그에게는 선장시절부터 남다른 연구심을 가지고 작성해온 부피두터운 자료집이 있다.

수시로 변하는것이 어장조건이다. 물론 물온도전송자료도 중요하였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의 물고기잡이와 관련한 자료도 결코 무시할수는 없다. 그래서 이곳 기사장은 먼저 2척의 속도가 빠른 안강망선을 예측되는 수역에 파견하여 생산탐색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러고는 잡은 물고기의 생물학적지표들을 분석하고 들어오는 물고기인가 나가는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중고 분산의 방법으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어로전을 벌이게도록 하였다.

정확히 어장을 선택한 다음에는 바람방향과 바다밑기복에 맞게 어로전을 벌리는것이 중요하였다. 성과여부는 배 전투단위를 책임진 선장들의 실무능력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었다.

하기에 사업소책임일군들의 지지밑에 기사장은 어한기에 선장, 부선장학습반과 기관장, 조기장학습반을 조직하고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모두에게 집중적으로 습득시켰다. 특히 참가자들모두가 콤퓨터모의시험과 함께 록상에서 그물조작방법들을 손에 륙 익히면서 원리적인 내용들을 환히 꿰뚫게 하였다. 이 사업은 높은 물고기잡이실적을 기록하는데서 소홀히 할수 없는 일이였다.

사업소의 혁신자로 소문난 림창민선장은 낮과 밤에 따르는 미세한 그물의 늘쥘조작방법을 깊이 파악한 결과 밤시간에도 기망당 까나리잡이에서 서해의 최고실적을 기록하였다. 또 김금성선장은 배운 내용을 실천에 응용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여 다른 고기배들보다 2배에 달하는 어획고를 놓치지 않았다. 윤성진선장의 경우에도 바다물의 흐름방향에 따르는 그물조작방법을 습득하여 매번 만선기를 휘날리고있다.

만선의 배고동소리는 포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곳 수산사업소의 고기배들이 언제나 정확한 어장을 선택하고 기망당 생산성을 다른 단위들보다 훨씬 높이고있는것은 이렇게 과학수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신뿐아니라 사업소의 초급지휘성원모두의 과학기술실력을 제고하기 위해 부단히 사색하고 실천해온 기사장의 노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사업소의 지배인, 초급당위원장은 중심어장에 자주 나가 어로전투과정에 겪린 문제들이 어떤것인가를 직접 확인하고 보장조건을 앞질러가며 세워주었다. 그럴수록 기사장의 역할은 더욱 높아져 사업소적인 생산실적은 나날이 뛰여올랐다.

사업소의 참모장인 기사장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년간 물고기잡이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련이어 높은 어획고를 기록해가는 이 단위의 경험은 수산부문 일군들에게 시사적인 문제점을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전 성 삼

만리마시대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당적지도에서 중시한 문제

대동강건설관리국 당위원회 사업에서

대동강건설관리국 당위원회가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중시한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볼수 있다.

하나는 관리국의 당, 행정일군들속에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워준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조원들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믿음과 정을 준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속에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세워주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몇해전 이곳 당위원장으로 임명된 강경식동무는 3대혁명소조사업을 료해하는 과정에 일부 일군들속에서 소조사업에 낯을 적게 돌리는 편향이 나타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당책임일군은 3대혁명소조사업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에 비추어볼 때 일부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이 결코 조건에 기인된것이 아니라 당위원회가 당적지도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옳게 따라세우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당책임일군은 단위의 특성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구현하여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였다.

그 대표적실례로 년간에 2차에 걸쳐 진행되는 3대혁명소조사업총화모임을 의의있게 조직한것을 들수 있다.

지난 시기 관리국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과 관련한 총화모임에 대체로 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파견된 단위의 당, 행정일군들이 참가하였었다.

당위원회에서는 굳어진 이런 관례를 깨고 3대혁명소조원들이 파견된 단위가 아닌 단위의 당, 행정일군들도 모임에 참가하도록 하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총화형식도 지난 시기처럼 해당한 장소에 모여 성과자료를 알려주며 총화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회의에 앞서 관리국적인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성과전시회를 의의있게 진행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것은 당, 행정일군들이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이런 총화형식이 얼마나 큰 실효를 나타내였는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실례가 있다.

지난 2월, 당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대혁명소조원들이 거둔 성과를 총화하는 모임의 실효를 더욱 높이기 위해 관리국적인 기술혁신성과전시회를 조직하였다. 이날 일군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의 기술혁신성과를 보여주는 직관물과 전시품들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속에는 3대혁명소조원들이 새로 창안한 선박침수경보기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한 일군도 있었다. 그로 말하면 수십년간 건설부문에서 일해오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그런것으로 하여 이 부문에서는 자기만큼 기계수내에 밝은 사람이 없다고 자부해오고있었다. 그런데 현장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젊은 소조원이 한다하는 선박분야의 기술자들도 혀를 찰 기발한 착상을 하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그날 일군은 지난 시기 3대혁명소조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신의 사업을 심각히 돌이켜보았다고 한다.

그 일군만이 아니였다. 3대혁명소조가 파견되지 않은 단위의 당, 행정일군들도 기술혁신성과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자기 단위의 걸린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3대혁명소조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해나갈 결심을 굳히였다.

당위원회가 일군들속에 3대혁명소조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워주기 위해 진행한 사업은 많다.

매주 진행하는 주간사업총화에서 당위원회가 3대혁명소조사업정형을 놓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고있는것이며 3대혁명소조원들을 관리국적인 당, 행정일군모임에 자주 참가시켜 그들의 긍지감을 더욱 높여준 사실, 산하단위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소조원들이 이룩한 기술혁신성과를 제때에 현실에 받아들이도록 적극 떠밀어준 사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일군들속에 3대혁명소조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워주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다음으로 이곳 당위원회는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믿음과 정을 주는 문제를 중시하였다.

오늘 첨단과학기술성과로 조국을 빛내이는 청년인재가 되려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리상과 포부는 대단히 높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실패와 난관을 동반하는 어려운 과학기술의 초행길을 헤쳐야 한다.

여기로부터 각급 단위의 당조직들이 믿음과 정을 주는것은 3대혁명소조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는 여기에 이곳 당위원회 일군들이 지난 기간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기울인 믿음과 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는 펼치지 않는다.

려명거리건설장에서 절개식회돌고정지구를 창안하여 휘틀의 조립해체시간을 단축하고 공사속도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한 한 소조원이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앞에서 한 대답을 들어보자.

《오늘의 이 성과가 어찌 저의 창조적사색과 탐구의 결정체라고만 하겠습니까. 난관앞에 주저앉을세라, 실패에 맥을 놓을세라 떠밀어주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조직의 믿음과 사랑이 이런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찌 한 소조원의 심정만이랴.

주봉철, 리진국, 변순철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 누구의 가슴속에서나 이런 심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그러니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이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처럼 대동강건설관리국 당위원회에서는 3대혁명소조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일군들의 관점문제, 믿음과 정을 주는 문제를 당사업의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전례없는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본사기자 최영길

그들이 걷는 길

흥남비료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두뇌전, 기술전을 과감하게 벌려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의 명수, 최첨단돌파전의 선구자가 되여야 합니다.》

지난해 6월 어느날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촉매연구소 연구사들은 3대혁명소조원 한광민동무가 내놓은 착상을 놓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암모니아합성촉매원료로 인공자철대신 자연상태의 자철을 그대로 리용하자는것이 아닌가. 그것이 성공하면 우리 나라에 흔한 자철로 암모니아합성촉매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어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닌것이다.

연구사들모두의 얼굴에 감탄의 빛이 어리였다.

그렇다면 소조년한도 적은 그가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착상을 할수 있었는가.

한동무가 이런 대담한 착상을 내놓게 된데는 계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하신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던 그는 화학공업부문에서 촉매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구절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촉매의 국산화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였었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접하고보니 심장이 세차게 높뛰였다. 촉매의 국산화는 련합기업소의 생산에서 제일 절실한 문제였던것이다.

촉매의 국산화실현은 과학자, 기술자들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몫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척후병, 기수가 되자.

이렇게 생각한 그는 즉시 암모니아합성촉매에 대한 자료연구에 달라붙었다. 한건의 과학기술자료를 얻기 위해 과학기술보급실에서 밤을 패기도 하고 때로는 수십리 먼길도 주저없이 달려갔다.

힘들게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던 어느날 그의 가슴은 환희로 부풀어올랐다. 인공자철의 구조가 자연상태의 자철과 류사했던것이다. 이것은 자연상태의 자철을 그대로 리용할수 있다는 좋은 실마리를 주고있었다.

자리를 차고 일어서던 그는 순간 굳어졌다. 화학공업에서 잘못 도입된 하나의 촉매가 어떤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는가 하는것을 생각할 때 선뜻 결심을 내릴수가 없었던것이다. 최악의 경우 생명까지도 내대야 하였다.

그렇다면 이 길에서 물러서야 한단 말인가.

생각은 깊어갔다. 그러나 물러서기에는 3대혁명전위의 량심이 허락치 않았다.

비장한 결심속에 그는 촉매연구소로 향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의 착상을 놓고 연구사들의 협의회가 열리게 되였던것이다.

한동무의 착상은 연구사들은 물론 련합기업소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고무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김운호동무를 비롯한 촉매연구소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연구사업에 떨쳐나섰다.

연구사업은 첫시작부터 열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소조원들은 품질이 높은 자철시료를 마련하기 위해 천여리길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마련한 시료로 암모니아합성촉매를 만들었을 때에는 머나먼 남흥까지 한달음에 달려가 위험한 촉매활성시험에 주저없이 뛰여들었다. 암모니아합성촉매를 국산화할수 있는 밝은 길은 이렇게 열리였다. 당의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려는 3대혁명전위들의 숭고한 자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그들이 걷는 길, 그것은 량심과 의리로 걷는 애국충정의 길이였다.

본사기자 허일무

척후병의 자격

김책제철련합기업소 3대혁명소조원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을 두고 창의고안의 명수, 다재다능한 실력가들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소조원들이 기술혁신에서 좋은 성과를 련이어 거두고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압연강판용물분사노즐설치방법, 마그네사-탄소생벽돌 P형장금노즐의 성형 및 가공방법, 유압성형장치와 그에 의한 성형방법, 용광로수쇄슬라크를 리용한 주형제조방법, 용광로가스에 의한 쇄탄로가열방법…

하다면 이런 성과들을 낳은 그들의 높은 실력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아래의 실례에서 찾기로 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되여야 합니다.》

새로운 속심재료로 압연종공강을 만들어낸 사실이 좋은 실례로 된다.

지난해 련합기업소앞에는 철강재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압연종공강을 자체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급선무로 나섰다.

이때 김광훈동무를 비롯한 소조원들은 전공분야가 아니였지만 이 문제를 자기들이 풀것을 결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구사업은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닥쳤다. 압연종공강속심재료를 우리의 원료로 리용하기 위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것이다.

많은 시일이 흘렀지만 연구사업에서는 이렇다 할 전진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소조원들이 되지도 않을 일을 붙안고 몇달씩이나 고생을 사서 한다느니, 그렇게 쉬울것 같으면 이미전에 벌써 기술자들이 만들었을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이 나돌았다.

소조원들속에서도 전공분야가 아니니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편향들이 나타나게 되였다.

이를 두고 소조책임자 조철민동무는 생각이 많았다. 그는 소조원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터놓았다.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라는 부름에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선봉투사가 될것을 바라는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그런데 이룹한 난관앞에 동요하는 우리를 어떻게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라고 부를수 있겠는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만 심장깊이 만장약한다면 과학기술실력도 높아지고 점령 못할 그 어떤 요새도 없게 될것이다.

그의 말은 소조원들에게 자신들을 심각히 돌이켜보게 하였다. 연구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았다. 바로 자기들의 심장이 달아오르지 못한데 있었다.

그들은 분연히 일떠섰다. 련합기업소당조직과 기술일군들도 그들을 적극 도와나섰다.

실력전의 된바람이 소조원들이 있는 그 어디에서나 세차게 일어번졌다. 과학기술보급실과 도서실을 찾는 그들의 발걸음이 잦아졌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며 그들은 지식의 탑을 한치한치 쌓아나갔다.

힘들 때도 많았다. 그때마다 소조원들은 당의 국산화방침을 기어이 관철할 억척의 신념과 의지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더욱 완강하게 전진해나갔다.

그들의 과학기술실력은 나날이 높아만 갔다. 이것은 좋은 결실을 안아왔다. 새로운 속심재료도 찾아냈고 외통주입시에 생기는 가스를 제거하는 방법도 완성하여 끝끝내 압연종공강을 만들어내게 되였던것이다.

결국 소조원들의 높은 과학기술실력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있었다.

압연종공강의 국산화실현은 자랑할만 한 성과였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성과는 이 나날에 3대혁명소조원들이 당정책의 제일옹호자, 제일관철자들로 억세게 자라난것이였다.

이들의 투쟁이야기를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의 철리를 새겨안게 된다.

3대혁명전위라면 그가 누구든 먼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라, 그러면 그 어떤 요새도 점령할수 있는 진짜배기 새 세기 산업혁명의 척후병, 기수가 될수 있다.

본사기자

량심과 헌신의 자욱

강서돼지공장 3대혁명소조원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하지만 강서돼지공장 3대혁명소조원들의 방에서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열띤 목소리들이 방안의 공기를 확확 달구었다.

《책임자동무, 우리 한번 대담하게 해봅시다.》

《주저할게 있습니까.》

저저마다 흥분된 심정을 토로하는 소조원들을 바라보는 소조책임자 윤철훈동무의 눈앞에는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 삼삼히 떠올랐다.

소조원들은 공장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 돼지폐사률을 결정적으로 낮추기 위한 문제를 자기들의 중요연구과제의 하나로 정하고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였다. 하지만 폐사률은 돼지 몇마리를 놓고 결정할수 없었다. 그것이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자면 큰 무리를 직접 관리하면서 육성과정을 분석종합하여 연구성과를 확증해야만 했다. 하여 소조책임자는 공장일군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터놓았다. 하지만 일군들은 선뜻 결심하지 못하였다. 그만큼 힘에 부치는 일이기때문이였다.

이렇게 되여 소조책임자는 이 문제를 소조원들에게 터놓게 되였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대혁명소조원들은 3대혁명의 전위, 투쟁의 기수들이며 우리 당의 핵심력량입니다.》

그는 다시한번 소조원들을 한사람한사람 둘러보았다.

허일선, 장선희, 김영철, 김관혁, 허주혁, 전성철…

사실 그들이 해놓은 기술혁신은 부분적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도 말할수 있었다.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수 있었다. 하지만 수령의 유훈관철에서는 한치의 드팀도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의지였다. 하여 이들은 주저없이 어려운 이 길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날 소조원들은 공장초급당위원회를 찾아갔다.

《우리를 믿어주십시오. 기어이 해내겠습니다.》

공장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그들은 두개 호동을 통채로 맡았다.

하루이틀도 아닌 몇달을 지쳐야 하는 힘겨운 전투가 벌어졌다.

여러가지 문제가 수없이 제기되였지만 제일 난문제는 돼지사양관리에 대한 파악이 부족한것이였다. 앓는 새끼돼지를 품에 안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힘겨워 쓰러지는 처녀소조원도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모르는것은 배우고 아는것은 배워주면서 자기들이 선택한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나갔다. 이 나날 소조원들은 그처럼 힘겨운 조건에서도 폐사률을 낮추기 위한 연구사업뿐만이 아니라 육종기일을 한달이나 앞당길수 있는 큰단백풀재배방법 등 실용성이 높은 기술혁신안들도 연구완성하였다.

불같은 정신력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폐사률문제해결에서 국가기준을 돌파하고 수백마리의 돼지를 튼튼히 길러낸 이들을 보며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해했다.

공장에서는 이들의 연구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사료를 절약하면서도 돼지폐사률을 훨씬 낮출수 있게 되였다.

수령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결사관철하려는 소조원들의 순결한 량심과 헌신이 안아온 귀중한 열매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윤명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0일 루이스 엔리께 곤쌀레스 아꼬스따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민족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손님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단장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이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총비서를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 단장으로 이란이슬람공화국을 방문하고있는 류명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18일 모함마드 나비 하비비 이란이슬람교련합당 총비서를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모함마드 나비 하비비총비서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면서 이란이슬람교련합당은 조선당과 정부가 이란인민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련대성을 표시해준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세계도처에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며 강권과 전횡을 일삼고있는 미국과 당당히 맞서나가는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이란이슬람교련합당은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여기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 성원, 이란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이란이슬람교련합당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루이스 엔리께 곤쌀레스 아꼬스따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대표단성원들은 한평생 가장 헌신적이고 영웅적인 투쟁으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만경대방문을 영원히 잊지 못할것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은 위대한 혁명가이시라고 강조하였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 개선문, 조선혁명박물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판문점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교육사업을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자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장 최봉호동무의 사업을 놓고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을 실현하는데서 단위 당책임일군들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교육사업을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틀어쥐고 완강하게 내밀어 훌륭한 성과를 안아온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을 취재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기관차가 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명당자리에 건축미학적으로나 교육설비와 비품의 현대화수준에서 흠잡을데 없는 북창공업대학 새 교사가 훌륭히 일떠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찬탄을 자아내고있다.

그 바탕에는 교육사업을 자기의 몫으로 틀어쥐고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가 되여 달려온 련합기업소당위원장 최봉호동무의 진취적인 당사업기풍이 놓여있다.

오늘과 래일에 대한 옳은 관점

인민경제의 생명선인 굴지의 대동력기지를 지켜선 당책임일군이 자체의 힘으로 대학교사건설을 결심한다는것은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기에 그가 새 교사건설을 발기했을 때 론의가 적지 않았던것도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였다. 전력생산이 기본인 기업소에서 교사건설이 웬 말이냐는것이다.

사실 최봉호동무자신도 그것때문에 오래전부터 계획하고있었지만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던 일이였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적요구 더우기는 현대적인 발전설비를 다룰 인재대부대를 하루빨리 키워야 할 기업소의 절박한 요구를 놓고 그는 더는 주저할수 없었던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회에서 최봉호동무는 준절히 말했다.

물론 전력생산이 기본이다. 그러나 생산이 기업소의 오늘의 생명이라면 교육은 기업소의 래일의 운명이다. 다시말하여 생산은 오늘이고 교육은 래일이다. 기업소의 오늘과 래일을 다 책임지는것이 바로 당이 바라는 일군, 시대가 부르는 일군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교육사업을 동떨어진 일로 여기는 사상관점에 있다. 다시한번 허리띠를 조이고 생산과 교사건설을 동시에 내밀자.

최봉호동무는 이렇게 호소하는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일군들속에서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학습열풍을 일으켰다. 또한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였으며 앞선 단위들에 대한 참관도 조직하였다.

그 과정에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첫걸음에 불과했다.

마음껏 설계하라!

주저없이, 아낌없이 투자하자.

최봉호동무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것은 교사설계에서부터 나타난 편향때문이였다. 한것은 설계일군들이 기업소의 어려운 자재와 자금사정을 놓고 이것저것 타산하면서 2층짜리 건물로 협소하게 설계했던것이다.

앞으로 늘어날 학과들과 그에 따르는 학생수도 타산해보니 교실이 어방없이 모자랐고 실험실습실들과 전자도서실을 비롯한 교육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자고 해도 방들이 더 있어야 했다.

최봉호동무는 설계가들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발전소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인재부대를 키우는 원종장이 될수 있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최상급으로 다시 설계하자. 그 어떤 조건을 타산하지 말고 마음껏 설계하라!

이렇게 되여 3층으로 된 덩지큰 새 교사형성안이 다시 나오게 되였다.

목표가 높은것만큼 난관도 컸다.

건설로력이 긴장했고 자재가 부족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모든 직장들에 골고루 로력분담을 하는 일본새가 나타났다. 이것은 기본생산에 지장을 주고 건설물의 질도 보장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세멘트를 비롯한 중요자재들을 우에서 보장해줄것만을 기다리다보니 일자리도 낼수 없었다.

최봉호동무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내놓았다. 로력문제는 김혁청년돌격대를 주력으로, 세멘트문제는 기업소의 세멘트생산설비를 개조하여 생산능력을 최대로 높여 풀자는것이였다. 말하자면 청년중시의 위력, 자력자강의 위력을 보검으로 틀어쥐자는것이였다.

그 생활력이 실천으로 확증되였다. 김혁청년돌격대를 보강하고 정치사업, 후방사업으로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니 건설의 속도와 질이 담보되였고 자체로 생산한 세멘트의 덕도 톡톡히 보게 된것이였다.

그러나 마감자재와 교육설비, 비품을 최상의것으로 마련하는 일만은 간단치 않았다. 엄청난 자금이 요구되였던것이다.

이때에도 최봉호동무는 지배인 김영철동무와 한마음한뜻이 되여 지금껏 굳건을 조개며 지축했던 자금을 눈을 꾹 감고 투자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여 다기능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20개의 강의실, 8개의 실험실습실, 원격강의실, 전자도서실, 종합강의실 등을 갖춘 현대적인 새 교사가 태여나게 되였다.

끝까지 책임지는 립장

훌륭한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었다고 하여 문제가 다 풀리는것은 아니다.

새 교사가 완공된 후 일군들속에서 성과에 만족을 느끼며 할바를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대학의 몫이란 식으로 교육사업에 낯을 적게 돌리는 편향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매일 사업보고에 대학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잘 반영되지 않는것을 놓고도 알수 있었다.

최봉호동무는 교육사업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늘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며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문제해결의 열쇠가 자신의 손에 쥐여져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기수가 되여 앞채를 메였다.

우선 매일 생산정형과 함께 대학사업정형도 보고받는 사업체계를 세워 대학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매일이다싶이 대학을 돌아보는것을 체질화, 습성화하였다. 미처 대학에 나가보지 못할 때에는 전화로라도 대학사업을 놓치지 않았다.

대학사업에 대한 그의 요구성은 대단히 높다.

교육의 질제고를 위한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대학관리운영개선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에누리를 몰랐다.

교수참관을 정상적으로 했으며 일이 바쁠 때는 지배인방에서 함께 콤퓨터로 교수참관을 하면서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묘리도 찾아주군 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관리운영과 교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최우선시하고 풀어주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되니 교사정상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는 물론 땔감문제, 살림집문제, 후방공급문제를 비롯한 교원들의 생활향상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책임일군의 교육사업에 대한 이런 투철한 관점과 깊은 관심은 모든 일군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어 온 련합기업소에 교육중시열풍이 더욱 뜨겁게 차넘치게 하였다.

＊ ＊

결론은 명백하다.

교육사업을 당책임일군의 몫으로 틀어쥐고 중요한 당적사업으로 전환시켜나가는 이런 당책임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기마련인것이다.

본사기자 김영철

종업원들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대외건설지도국 중기계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종업원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당일군들가운데는 대외건설지도국 중기계사업소 초급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그들의 사업년한은 길지 않다. 하지만 어떻게 되여 짧은 기간에 종업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였는가.

우리는 취재과정에 그 비결을 알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일군들의 사업기풍에서 좋은 점은 종업원들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작전하고 실천해나가고 있는것이다.

한문열동무가 초급당위원장으로 배치되여와서 첫 사업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는가를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가 온지 며칠 안되던 어느 날이였다. 한 일군이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킬 계획서를 가지고 찾아왔다.

품을 들여 작성한 계획서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초급당위원장의 안색은 점차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계획서의 첫자리에 사업소의 사무실청사보수가 놓여있었고 그뒤에 작업반휴게실들의 보수와 목욕탕건설이 놓여있었기때문이였다.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도 사업소일군들의 종업원들에 대한 복무관점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느끼였다.

초급당위원회는 그날 저녁 건설 및 보수대상들에 대한 순서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모임을 열었다.

초급당위원장이 일군들에게 말하였다.

일군들을 위해 종업원들이 있는것이 아니라 종업원들을 위해 일군들이 있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함에 대한 당의 의도를 기준으로 삼고 한몸을 초불처럼 태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이런 복무관점에서 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자.

초급당일군의 절절한 목소리는 계획서초안을 가지고 찾아왔던 일군은 물론 참가자들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하여 뒤전에 놓였던 목욕탕건설과 휴게실보수가 앞에 놓이게 되였으며 그다음에는 식당과 온실건설 그리고 회의실보수 등으로 건설 및 보수대상들의 순서가 바뀌여지게 되였다.

초급당위원장의 첫걸음은 일군들에게 종업원들에 대한 복무관점을 심어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목욕탕건설과정을 놓고보아도 종업원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일해나가는 초급당일군들의 사업기풍을 잘 알수 있다. 건설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날, 건설작업반의 한 초급일군이 형성안대로 타일을 붙여야겠는데 그에 맞지 않는 색깔의 타일을 붙이고있었다. 알아보니 알맞는 타일을 구할수 없고 완공날자도 박두해서 이미 있던 타일을 붙인다는것이였다.

그때 초급당일군은 그에게 종업원들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시작한 일인데 조건이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고 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당한 타일을 구해다 형성안대로 붙이자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필요한 타일을 해결해옴으로써 종업원들과 약속한 형성안대로 공사가 진행되게 하였다.

그때에야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목욕탕건설에 앞서 초급당일군이 왜 형성안을 만들어 종업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그대로 하기 위하여 요구성을 높여왔는가를 깨닫게 되였다.

이런 초급당일군이기에 그후 종업원들이 질좋은 물로 목욕을 할수 있게 수중펌프도 구해오고 샤와도 놓아주면서 목욕탕을 손색이 없이 꾸리도록 돌격대원들을 이끌었다.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한증탕이 달린 목욕탕은 한달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완공되게 되였다.

리인호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은 휴게실보수, 식당과 태양열온실건설도 종업원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진행되도록 하였다.

두철한 복무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나가는 초급당일군들이기에 종업원들의 마음을 울린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회의실보수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였다. 초급당일군이 분두작업을 중지시켰다. 날씨도 추운데 회의실의 바닥작업만은 뒤로 미루자고 하는것이였다.

늘 빨리빨리 하며 요구성을 높이더니 오늘은 왜서일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리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허물없는 사이가 된 초급당일군에게 물었다. 머칠이면 회의실보수가 끝나겠는데 왜 뒤로 미루는가고.

초급당일군은 그들에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종업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바닥에 형성안대로 대리석을 깔자면 아무래도 난방판을 해제해야 하고 보이라도 세워야 한다. 그러면 날씨가 추운 이때 종업원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게 될것이 아닌가.

그날 돌격대원들은 늘 종업원들의 생활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리는 초급당일군의 진정을 읽으며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그뿐이 아니다. 사업소의 경영관리를 짜고들어 일정한 자금과 후방물자가 마련되였을 때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종업원들의 생활에 돌려지게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때로 말하면 사업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벌려놓은 일이 많았다. 그래서 한문의 자금, 한호의 세멘트, 철근이 긴장한 때였다.

그 경영자금과 후방물자를 건설에 돌리여도 의견있을 종업원은 한명도 없었다. 건설 및 보수대상들이 다 자기들을 위한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초급당일군들은 이런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일군들에게 우리가 좀더 발이 닳도록 뛰면 된다고 하면서 자금과 후방물자를 그대로 종업원들에게 돌리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지난 1월 수백명의 종업원들이 한날한시에 보기에도 좋고 두툼한 솜옷을 받아안게 되였으며 가정들에는 후방물자들이 공급되게 되였다.

이런 실례를 들자면 끝이 없다. 수리직장 종업원들의 자업조건을 련리하게 해준 사실, 앓는 종업원들을 위해 헌신해온 이야기, 부모잃은 종업원들의 결혼상을 남부럼지 않게 차려준 사실…

날이 갈수록 이곳 초급당일군들에 대한 종업원들의 찬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는 사실을 놓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사업년한이 길다고 하여 존경의 대상으로 되는것은 결코 아니다. 사업년한은 짧아도 종업원들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일해나가는 일군들을 대중은 따르기마련인것이다.

본사기자 장철범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혁명적인 시를 통한 교양사업이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여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되게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대학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이 출연한 시, 노래발표모임이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단과대학, 학부별로 먼저 시, 노래발표모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거기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청년대학생들을 대학적인 시, 노래발표모임에 출연시키였다.

출연하는 청년대학생들은 자체로 시적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음악을 곁들여 편집하였고 혁명영화 《백두산》의 인상깊은 장면들을 그려보면서 시형상을 보다 세련시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인상깊은 대목들과 혁명가요들을 청년대학생들이 엇바꾸어 랑송하고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한 대학적인 시, 노래발표모임은 관람자들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재정대학, 생명과학부, 재료과학부의 청년대학생들이 랑송한 머리시도, 철학부와 정보과학대학, 력학부의 청년대학생들이 랑송한 제6장 시도 훌륭했다. 문학대학의 청년대학생이 칠호가 혁명전우의 무덤을 파며 가슴아파하는 대목을 읊을 때에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대학청년동맹위원회의 한 일군은 그때의 여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80년전 보천보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충천한 화광앞에 다시 선듯 한 심정이였습니다. 시랑송을 들으며 어찌나 흥분되였던지 지금도 그때의 감흥에 대하여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대학생들모두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할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대학적인 시, 노래발표모임은 이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이 청년대학생들의 심장마다에 또다시 만장약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직관선전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종합대학의 모든 단과대학, 학부들에는 5대교양과 관련한 직관선전판들이 그른하게 갖추어져있다. 그 직관선전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는 단위들중의 하나가 물리학부이다.

물리학부 초급당조직에서는 한편의 혁명적인 시나 명곡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초급해설원들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도록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였다.

전문학강좌 교원 황신철동무와 학생들인 배용광, 김정혁동무들이 최근에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있다.

이들은 우선 시 《조선은 싸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혁명의 지나온 년대들에 창작된 좋은 시들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자주 읊어보았다.

그리고 그 훌륭한 시들이 어떤 시대적환경속에서 나오게 되였는가를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어떤 주제의 직관선전판앞에서 자연스럽게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하겠는가를 연구해보았다.

해설선전을 먼저 하고 마감에 시를 읊는 형식으로도 해보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적절한 대목에 가서 시를 읊고 해설선전을 계속 이어가는 형식으로도 해보았다.

이처럼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 초급해설원들이 전화의 영웅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직관선전판앞에서 읊은 시 《조선은 싸운다》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는 교직원들과 청년대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리수복, 조군실, 강호영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었다.

계급교양주제의 직관선전판앞에서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자료를 다시금 보면서 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들은 교직원들과 청년대학생들도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물리학부에서 직관선전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강좌단위로, 학급단위로 자주 진행하고있는 시를 통한 교양사업방법은 종합대학안의 모든 단과대학, 학부들에로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전승의 메아리 — 전시가요명곡들

《소년빨찌산의 노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인민군전사들이 싸우는 고지마다에서 전시가요 《결전의 길로》를 부르며 미제침략자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길 때 나어린 소년단원들은 전시가요 《소년빨찌산의 노래》를 부르면서 후방을 지키고 원쑤들에게 끝없는 공포와 패배를 안겨주었다.

이 가요를 부르며 소년빨찌산투쟁을 벌린 수많은 소년단원들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소년혁명가, 소년영웅으로 자라났다. 전쟁의 시련속에서 우리 조국의 나어린 세대들이 어떻게 성장하였으며 얼마나 굳세여졌는가를 전시가요 《소년빨찌산의 노래》는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미더운 소년단원들은 지난 시기에도 항일아동단의 혁명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소년단기발을 자랑스럽게 휘날리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히 싸웠으며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전시가요 《소년빨찌산의 노래》는 고원소년근위대 대장 서강렬소년이 장렬하게 희생된 후 그의 고향땅에서 창작의 필봉을 비껴든 시인, 작곡가에 의하여 세상에 태여났다. 서강렬소년이 《김일성장군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며 최후를 마친 력지강만에 이른 창작가들의 눈앞에는 전쟁의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년빨찌산들의 군상이 비장하게 안겨왔다.

이 땅의 나어린 세대들은 미제원쑤들의 귀축같은 만행앞에서 수난자로만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용악 손에 총을 틀어잡고 나어린 복수자가 되였으며 조국보위성전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마련해주신 아름다운 고향, 정든 학교가 곧 조국이고 그것이 없으면 자신의 삶도 없다는것을 실지생활을 통하여 절감한 우리의 소년빨찌산들은 전쟁의 시련속에서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심장으로 깨달았던것이다.

절대로 잃어서는 안될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소년빨찌산들은 원쑤들의 총구앞에서도 웃으면서 최후를 마치였다. 이들의 가슴에 차넘치던 승리의 노래, 아름다운 삶의 노래를 생각하며, 승리한 조국땅에서 마음껏 고향의 대지를 활보하며 씩씩하게 자라날 우리의 모든 새 세대들의 모습을 그리며 창작가들은 한자한자 행진곡조의 노래를 지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 세워주신 새 나라, 새 조선에서 꿈같은 학창시절을 보내며 《밝아오는 조국땅에 노을빛으로 붉게 타는 넥타이를 펄펄 날려라》라는 활희롭고 명랑한 노래만을 부르던 소년단원들, 오늘은 그들모두에게 증오와 분노, 복수로 이글거리는 비장한 노래를 지어주지만 승리의 날에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배움의 노래, 아름다운 고향의 노래들을 안겨주리라는것이 창작가들의 불같은 심정이였다.

…

하늘 푸르고 시내 맑은 우리 조국땅에서
피에 주린 침략자 모조리 쳐부시자
부모형제 피자국은 우뢰 보고 헤친다
아 나어린 어깨에 복수의 총을 메고
나섰다 승리의 길로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창작된 전시가요 《소년빨찌산의 노래》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소년애국자, 소년영웅들을 키워냈으며 인민군용사들의 심장속에 두고온 고향과 부모형제에 대한 불타는 사랑과 원쑤에 대한 서리발같은 증오심을 만장약시키고 결전의 길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본사기자 리수정

◎ 빛나는 위훈의 전통을 후대들에게! ◎

우리의 전쟁로병들과 새 세대들이 흥페하게 웃고있다.

몸은 비록 늙었어도 마음은 전화의 청춘으로 살고있는 전쟁로병들의 잊지 못할 추억이 선교구역 선교초급중학교 학생들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희열을 안겨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들과의 치렬한 전투마다에서 빛나는 승리만을 떨쳐가던 전우들의 미더운 모습들이며 가렬한 전투가 끝난 뒤면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저멀리 평양하늘가를 우러러 충정의 노래, 맹세의 노래를 부르던 못 잊을 그 지녁이 삼삼히 어려와 격정을 금치 못하는 전쟁로병들.

로병들의 위훈담을 가슴마다에 새기며 인민군용사들의 맹호같은 공격에 쩔쩔 매던 원쑤들의 가련한 모습을 그려보는듯 환성을 올리기도 하고 로병들이 지닌 숭고한 조국애,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귀중한 조국을 굳건히 지켜갈 각오를 가다듬기도 하는 학생소년들.

전쟁로병들의 위훈이 있어 조국이 빛나고 오늘의 행복이 꽃펴나고있음을 심장속깊이 절감하며 학생들모두는 사회주의조선의 참된 아들딸, 소년혁명가가 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진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남

자강도인민병원에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은 그 인식교양적의의와 감화력으로 하여 사람들을 참된 삶과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위력을 나타냅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혁명적인 시를 통한 교양사업이 어려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여 큰 은을 나타내고있다.

백두의 혁명정신이 만장약되게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대학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이 출연한 시, 노래발표모임이 특색있게 진행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청년동맹위원회의 일군들은 단과대학, 학부별로 먼저 시, 노래발표모임을 진행하도록 한 후 거기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된 청년대학생들을 대학적인 시, 노래발표모임에 출연시키였다.

출연하는 청년대학생들은 자체로 시적정서를 불러일으키는 효과음악을 곁들여 편집하였고 혁명영화 《백두산》의 인상깊은 장면들을 그려보면서 시형상을 보다 세련시키기 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였다.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인상깊은 대목들과 혁명가요들을 청년대학생들이 엇바꾸어 랑송하고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한 대학적인 시, 노래발표모임은 관람자들모두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재정대학, 생명과학부, 재료과학부의 청년대학생들이 랑송한 머리시도, 철학부와 정보과학대학, 력학부의 청년대학생들이 랑송한 제6장 시도 훌륭했다. 문학대학의 청년대학생이 칠호가 혁명전우의 무덤을 파며 가슴아파하는 대목을 읊을 때에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대학청년동맹위원회의 한 일군은 그때의 여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80년전 보천보의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충천한 화광앞에 다시 선듯 한 심정이였습니다. 시랑송을 들으며 어찌나 흥분되였던지 지금도 그때의 감흥에 대하여 누구나 이야기하고있습니다. 청년대학생들모두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히 심장에 간직하고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더욱 억세게 준비할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대학적인 시, 노래발표모임은 이처럼 백두의 혁명정신이 청년대학생들의 심장마다에 또다시 만장약되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직관선전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종합대학의 모든 단과대학, 학부들에는 5대교양과 관련한 직관선전판들이 그른하게 갖추어져있다. 그 직관선전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고있는 단위들중의 하나가 물리학부이다.

물리학부 초급당조직에서는 한편의 혁명적인 시나 명곡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깊이 새기고 초급해설원들이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도록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였다.

전문학강좌 교원 황신철동무와 학생들인 배용광, 김정혁동무들이 최근에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하여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있다.

이들은 우선 시 《조선은 싸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비롯하여 혁명의 지나온 년대들에 창작된 좋은 시들을 수첩에 적어가지고 다니며 자주 읊어보았다.

그리고 그 훌륭한 시들이 어떤 시대적환경속에서 나오게 되였는가를 깊이 학습한데 기초하여 어떤 주제의 직관선전판앞에서 자연스럽게 시를 통한 교양사업을 하겠는가를 연구해보았다.

해설선전을 먼저 하고 마감에 시를 읊는 형식으로도 해보고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적절한 대목에 가서 시를 읊고 해설선전을 계속 이어가는 형식으로도 해보았다.

이처럼 빈틈없는 준비를 갖춘 초급해설원들이 전화의 영웅들의 투쟁모습을 반영한 직관선전판앞에서 읊은 시 《조선은 싸운다》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는 교직원들과 청년대학생들의 가슴마다에 리수복, 조군실, 강호영영웅들이 지녔던 숭고한 정신을 더 깊이 심어주었다.

계급교양주제의 직관선전판앞에서 불구대천의 원쑤 미제가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자료를 다시금 보면서 시 《벌거벗은 아메리카》를 들은 교직원들과 청년대학생들도 원쑤격멸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였다.

물리학부에서 직관선전판들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강좌단위로, 학급단위로 자주 진행하고있는 시를 통한 교양사업방법은 종합대학안의 모든 단과대학, 학부들에로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자강도인민병원에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우리 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인민병원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보건부문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 힘을 넣어 인민들에게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더 잘 미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기술실무수준을 높이며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예방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고있다.

지난 기간 병원에서는 의료일군들의 의학과학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일반화하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병원에서는 해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을 비롯한 중앙병원들에 수십명의 의료일군들을 보내여 최신의학과학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실과 전자도서실을 잘 꾸려놓고 먼거리의료봉사체계를 통한 중앙병원들과 시, 군병원들사이의 협의를 강화하여 환자치료에서 전환을 가져오고있다. 정호일, 선룡숙, 권철우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담력과 배짱으로 의학과학기술의 정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가고있다. 이들은 실력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면서 병원의 모든 의료일군들의 실무수준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내밀고있다.

병원에서는 년간 의료일군들의 자질향상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우고 과별, 개인별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려 실무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기술부원장 권철우, 의사 림혁철, 기능진단과 의사 김은정동무들이 새로운 치료방법을 연구도입하여 석사의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많은 의료일군들이 가치있는 소론문들을 발표하고 새로운 림상기술을 환자치료에 받아들이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있다.

마취과와 종양예방과에서는 앞선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환자치료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반외과에서는 화상자리를 깨끗이 없앨수 있는 수술방법을 새로 연구도입한것을 비롯하여 가치있는 성과들을 환자치료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병원에서는 먼거리의료봉사실과 전자도서실을 훌륭히 꾸려놓고 적극 활용하고있으며 실험실들과 검사실들, 진단실들을 무균화하고 소생실에 구급약들과 치료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 또한 의료설비들과 의료기구들을 새로 구입하는 등 치료의 과학화수준을 더욱 높이고있으며 자체로 갖가지 고려약들을 생산하여 환자치료에 리용하고있다.

병원의 의료일군들은 기관, 기업소, 단위들에 나가 건강검진과 의료봉사활동도 활발히 벌리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특파기자 김순흥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설 때

정주시출판물보급소에서

정주시출판물보급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 단위를 현대적미감이 나게 훌륭히 꾸려놓고 출판물보급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출판물보급소를 꾸리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소장 리춘화동무는 무슨 일이나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고 하면서 종업원들을 불러일으켰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리춘화동무는 출판물보급사업과 도서선전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해나가면서 출판물보급소를 꾸리는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모든 종업원들이 출판물보급소를 꾸리는 일을 자기 집일처럼 여기고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들은 출판물보급사업과 도서선전사업을 끝내고 밤늦게까지 건설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가며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였다.

리춘화동무는 종업원들과 함께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전투장에 나와 건설자들을 고무해주었으며 현관문과 출입문, 창문들을 새로 제작하여 달고 책방의 배장과 도서진렬대도 현대적미감이 나게 설치하는데 품을 들이였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선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불과 몇달동안에 출판물보급소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하게 일떠섰다.

이곳 일군들과 출판물보급원들은 출판물보급사업과 도서선전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갔다.

김애경동무를 비롯한 출판물보급원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으로 무장시키는데서 출판물보급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출판물들을 신속정확하게 보급하기 위해 온갖 열정을 다 바치고있다.

그들은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이 벌어지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도서해설선전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그 실효를 높이고있다. 박충심, 현정임, 주옥별, 김진경, 장순화동무를 비롯한 이곳 출판물보급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 달려나가 도서해설선전과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오늘도 이곳 보급원들은 출판물보급사업과 도서선전활동을 활발히 벌려 만리마천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특파기자 송창윤

대중이 따르는 실력가형의 일군

‖ 신창대성수산사업소 지배인 오현일동무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일은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에서 맡은 사업을 혁명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신창대성수산사업소 지배인 오현일동무는 사업소종업원들은 물론 신창로동자구에 살고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꼽이 센 일군, 인정많은 일군, 실력가형의 일군으로 존경을 받고있다.

10여년전 이 단위에 첫발을 들여놓고 실태를 료해하는 오현일동무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그도그럴것이 수산업을 전문으로 하는 단위라면 뭐니뭐니해도 물고기를 잡아놓고봐야 할것이 아닌가. 그런데 변변한 고기배가 없었다. 어구자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있는것마저도 매우 낡은것이였다. 게다가 종업원들에 대한 후방사업도 시원치 못하였다. 결국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걸리고있었다.

오현일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시와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며 사업소가 나아갈 방도를 모색하였다.

(현시기 당에서 바라는대로 물고기를 많이 잡자면 우선 물고기잡이배와 어구자재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도는 있다.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야 한다.)

그때부터 오현일동무는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힘을 넣었다. 나라의 수산업발전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에 대하여, 활성화된 사업소와 그 덕을 보게 될 래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의 손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사업소를 보란듯이 일떠세우자는 그의 열정적인 호소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다. 종업원들의 살림집문제, 식량문제, 땔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식을 잊고 뛰여다니는 그의 모습은 로동자들의 투쟁열, 애국열을 백배해주었다. 사업소의 전반사업을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는 그처럼 바쁜 속에서도 건강이 좋지 못한 로동자들을 료양소로 떠밀어주고 마음속고충을 안고있는 종업원을 위하여 앓는 몸으로 사업에서 찾아보게 되는 특징이다. 대중의 앙양된 기세에 맞게 그는 자신부터 현대어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하면서 어로공들의 과학기술지식과 기능수준을 높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한편 다른 단위들에서 수리하기 어렵다던 낡은 배들을 가져다 기술수준이 높고 바다일에 능한 량봉학, 량금수동무들을 비롯한 로동자들과 합심하여 그것들을 현대적인 만능어선으로 개조하기 위한 전투를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또한 대화기와 어군탐지기를 비롯한 기재들과 각종 어구자재들도 새로 갖추어놓고 든든한 수리기의 일군들처럼 어로공들과 함께 배를 타고 앞장에서 날바다를 헤치며 사생결단의 의지로 황금해의 력사를 빛내이기 위해 투쟁해나가는 오현일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그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어로공별, 배별, 작업반별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거세찬 경쟁열풍을 일으켜 대중의 정신력을 끊임없이 고조시켰다. 뿐만아니라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으로 과학적인 어로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르는 총화사업도 철별, 분기별로 매우 엄격히 하였다.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에 과학기술의 위력을 합치니 생산장성은 물론 생산문화, 생활문화화 립을 위한 투쟁에서도 이룩되는 성과는 뚜렷하였다. 최근년간 사업소에서는 자체로 500여m의 신창천기슭을 번듯하게 정리하고 랭동고와 물고기가공장, 저장고를 비롯하여 현대적인 생산설비들을 갖춘 당지큰 건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초급당위원장 김명건동무는 우리는 앞으로도 남의 힘, 남의 덕으로가 아니라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높이 자기 식의 투쟁방식, 창조본때로 더 큰걸음을 내짚으며 사업소가 수여받은 3대혁명붉은기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오현일동무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는 일군들이 자기 단위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갈 때 만난시련을 뚫고 증산과 혁신의 동음을 세차게 울릴수 있으며 그 어느 단위든 만리마대진군의 전렬에 당당히 설수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김성남

주조무관단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참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0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한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 판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무관단 단장인 로만 오스발도 히메네스 오르메가 꾸바공화국대사관 무관은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이 빛나고 조선인민의 조국수호정신을 보여주는 기념관을 참관한데 대하여 무관단성원들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동지의 령도밑에 주체, 선군의 기치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미제는 절대로 조선을 어쩌지 못할것이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박정순학부장과 김양승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의 손으로 불덩이를 쥐게 하는 파렴치한 술책은 통할수 없다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비상히 높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시험발사의 성공은 우리 민족에게는 대경사로, 침략자 미국에는 악몽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심장부를 겨눈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가 어느 시각에 보복의 불벼락을 들씌우겠는지, 다음에는 또 어떤 《선물보따리》를 맡아안게 되겠는지 불과 미국통치배들속에서 절망의 비명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지금 미국언론들은 《북핵문제》때문에 트럼프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북에 대한 제재가 먹어들지 않아 신경이 곤두섰다고 떠들고있다.

피이한것은 미국이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고있는것이다.

미국은 우리가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하게 된 책임은 《동상이몽한 중국에 있다.》, 《미국은 중국에 속히했다.》고 고아대면서 그 본줄이를 해대는 한편 중국남해에서의 《항해의 자유》작전재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중국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코트》적용 등의 카드를 꺼내들고 중국에 대한 압박공세를 들이대고있다.

미국회 상원은 13일 《북조선조력자책임법》을 채택하고 우리와 련계하고있다는 중국의 금속, 철광, 강철, 무역부문 10대기업을 제재대상으로 결정, 선포하였으며 하원은 사법성을 동원하여 우리와 련계하고있는 중국무역회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미국은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고률의 관세와 수입할당제를 적용할것도 제획하고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가 성공한 이후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우리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행사에 로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북의 위협은 전세계가 맞서야 할 안보문제》, 《미국이 직면한 최우선문제》라고 떠벌인것과 때를 같이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싸드》반입함의를 철저히 리행하게 하는것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2중3중으로 들이대고있는가 하면 조선과 중국이 해킹으로 미국대통령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생트집까지 걸고있다.

분노한 중국은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은 미국의 대조선대결정책에 있다.》, 《미국은 핵문제를 중미관계의 인질로 삼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미국을 위한 지뢰제거자가 될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해결》을 내들고 미국의 대조선추가제재요구에 반대해나서고있다.

미국이 중국을 우리에 대한 제재강화에로 몰아대고있는것은 저들에게 우리를 압박할 힘이 더는 없다는데로부터 나오는 아우성이나 같다.

제가 찌리는 입은 남도 찌린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에 대해 《중국책임론》을 떠드는것은 제손이 뗄가봐 짤짱을 끼고 남의 손으로 불덩이를 쥐게 해보려는 파렴치하고 교활한 술수이다.

우리의 전략무기들은 우리와 교전중에 있는 미국을 대상하여 개발완성한것이다. 우리가 《절대병기》인 수소탄과 《보이지 않는 허주먹》인 전략잠수함탄도탄은 물론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한것은 끊임없는 핵공갈로 우리를 핵무력강화에로 떠민 미국의 《공로》이다.

핵문제해결의 열쇠는 중국의 손에 있지 않다. 핵문제는 조미사이의 문제이므로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달려있다, 방울을 단자가 방울을 메야 한다는 중국의 주장이 틀리지 않는것 같다.

자주적대가 확고히 선 우리에게 그 어떤 나라도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다는것을 모르고 우매하게 놀아대고있는 미국이 참으로 가련하다.

우리의 길은 세계를 향하여 수백수천갈래로 뻗어있지만 세계가 우리를 압박할수 있는 《통로》는 그 어디에도 없다.

모든 나라에는 자기의 자존심과 핵심리익이 있고 자기 식의 전략적타산이 있다. 이것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을 위해 뛰여다닐 나라는 승미공미에 뼈속까지 써든 몇몇 줄개나라들밖에 없다.

미중의 전략적리익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있는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그 어떤 사태발전이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는것이라면 그만큼 중국에는 좋은것으로 된다는것은 변증법이다. 《싸드》를 두고 워싱톤의 중국견제와 베이징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이 충돌하고있는것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중국외교일군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싸드》배치가 겉으로는 북을 겨냥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향한것이라는데 대해 《항장이 칼춤을 추는 의도는 패왕을 죽이려는데 있다.》는 고사로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우리의 핵무력이 미국의 대중국로위전략에 파렬구를 내고 지역의 패권을 노린 미, 일, 남조선《군사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철퇴이라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해양침략세력과 대륙방위세력의 신랭전이 표면화되고있는 때에 미국이 중국더러 자기의 안전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하라고 강박하는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중화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것은 물론 장구하고 심각하며 회복하기 힘든 엄청난 손실을 강요하는것으로 된다.

일찌기 중국의 문호 로신은 한사람의 행위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자신도 불리익을 당하는 그런 행위처럼 치졸한 행위는 없다고 하였다.

대양건너 미국의 압박에 떠밀리워 이마를 맞대고 사는 이웃에게 해를 끼쳐서 좋을것이 취를도 없다는데 대해서는 압록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노는 어린아이들이 더 잘 알고있다.

미국이 그 누구를 통하든, 단독으로 강행하든 새로운 제재와 압박조치를 취할수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강한 핵단추, 보다 무서운 로케트단추를 누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내세워 우리를 압박한다고 하여 조중 두 나라 인민이 반제반미항전을 통해 피로써 맺은 우의와 친선의 전통을 절대로 깨뜨릴수 없다. 력사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조중인민이 쓴 우의와 친선의 전통적인 력사는 미국같은 깡패국가가 무례무도하게 놀아댄다고 하여 지워질수 있는것이 아니다. 중국내에서 대조선제재도수를 더욱 높이라는 미국의 강박에 반발하여 《중국은 그 어느 나라의 국내법에 따른 결정을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법치국가로서 내정에 대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한다.》, 《조선과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있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미국은 자주적국가의 자존심과 력사의 전통을 무시하고 그 누구를 저들의 과수군, 저들이 제꺽으로 때려모는 마차로 삼을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망신과 배척밖에 당할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조 남 수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와 슬로베니아에서는 로작연구토론회가, 캄보쟈와 인도네시아, 벨가리아, 베네수엘라에서는 업적토론회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나이제리아선군정치연구소조 위원장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의 기본내용을 해설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세워주시고 인류자주위업실현의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조선인민은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려는것이 조선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다.

캄보쟈 왕궁담당부수상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각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실천에 구현하신 희세의 사상리론가, 특출한 정치가이시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자주독립국가로 존엄떨칠수 있었다.

나라와 인민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캄보쟈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 특기할 공헌을 하신 김일성대원수각하를 캄보쟈인민은 열렬히 흠모하고있다.

인도네시아 알람 바하기아버르짜마회사 사장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이 만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적영웅,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그이께서는 한세대에 미일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조선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그이의 공적은 진보적인류의 가슴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벨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주체사상이 훌륭히 구현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대해 해설하고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있고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기에 조선은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이 강한 나라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비록 서거하시였지만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그이의 사상과 업적은 영원불멸하다.

주체사상연구 베네수엘라전국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한평생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계사적공적을 찬양하고 김일성동지는 전인류가 세기와 더불어 영원히 우러러모시는 20세기의 위인, 불세출의 대성인이시라고 칭송하였다.

민주꽁고단체 블레찐특간호 발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서거 23돐》이라는 표제로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일 블레찐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찐은 《김일성주석의 좌우명》, 《진보적인류의 영원한 수령》, 《강철의 령장》이라는 제목의 글들을 편집하였다.

블레찐은 7월 8일에 즈음하여 진보적인류는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김일성주석의 성스러운 한평생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사상리론업적과 조국해방업적, 전승업적을 소개하였다.

이민위천은 김일성주석의 좌우명이였다고 하면서 블레찐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제나 인민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신데 대해 전하였다.

블레찐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주도해나가신 절세위인의 공적을 찬양하였다.

초불민심에 도전하며 감히 머리를 쳐드는 추악한 보수역적무리들을 씨도 없이 박멸해버려야 한다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죄악들을 날날이 파헤쳐 그 주범들과 공범자들을 추히 엄벌에 처하려는 각계층 민심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속에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과 정보원의 정치개입사건, 군수산업분야부패행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러한 때에 청와대에서는 박근혜패당의 각종 범죄들을 적라라하게 보여주는 천수백건에 달하는 내부문서들까지 새로 발견되여 남조선사회가 왁작 끓고있다.

남조선 각계층은 《박근혜정부야말로 썩을대로 썩은 정부》, 《이렇게 증거가 쏟아지는데도 범죄자들을 아직 살려두고있으니 말이 되느냐.》, 《당국은 개혁의 칼날을 더 무섭게 휘둘러야 한다.》고 분노를 터치고있다.

문제는 이런 협악한 분위기에 쉬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보수패거리들이 오히려 악을 쓰며 범죄수사에 반발해나서고있는것이다.

금혜맞은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와 《바른정당》의 하태경을 비롯한 보수야당패거리들은 《박근혜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보수죽이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이라고 고아대는 한편 《법적대응》이요, 《참여정부》의 부정의혹명령수사요, 《국회》입정거부요 하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보수언론들과 보수단체떨거지들을 부추겨 《박근혜재판에 영향이 미치게 하려는 유치한 행태》, 《전례없는 검찰수사개입》이라고 비난소동을 벌리고 지어 박근혜《정권》의 실패는 보수의 실패가 아니라느니, 《박근혜는 억울함을 당한 대통령》이라느니 하는 궤변까지 늘어놓고있다.

한편 재판을 받고있는 박근혜, 최순실과 김기춘을 비롯한 특대형범죄자들과 교용변호인단것들은 보수세력의 반발분위기를 타고 폐명을 부리며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재판회수를 줄여달라고 생억지를 쓰면서 죄행을 무마해보려고 추하게 놀아대고있다.

그야말로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미친개무리들의 무분별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바와 같이 박근혜《정권》은 남조선인민들과 온 민족앞에 천추에 씻지 못할 만고죄악을 지지른 력대 가장 추악한 오물《정권》, 썩어문드러진 악성종물, 들출수록 악취풍기는 부패서식장이다.

이번에 새로 발견된 청와대내부문서들에는 기업경영권장악을 지원해주기로 하고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막대한 뢰물을 받아먹은 사건과 진보적문예인들을 박해, 탄압하기 위한 요시찰명단작성, 급유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방해, 《유신》독재를 찬미한 력사교과서 《국정화》강행추진 등의 범죄행위들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조직적인 개입사실, 불법적인 지시사항들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실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역적패당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정치보복》이니, 《법적대응》이니 하며 범죄수사를 걸고들며 란동을 부리고있는것은 남조선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도전이다.

보수떨거지들이 박근혜《정권》의 실패는 보수의 실패가 아니라느니, 《박근혜는 억울함을 당한 대통령》이라느니 하는 망발을 제처대고있는것은 결국 박근혜가 감옥귀신이 되였다고 보수가 다 죽은줄 아는가 하는 속에 품은 독기를 서슴없이 드러낸것이며 박근혜탄핵심판에 대한 로골적인 불복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더우기 시로 피어지게 물고뜯으며 개싸움질을 하던 보수야당패거리들이 한짝이 되여 현 집권당국의 적폐청산에 반발해나서고 전면붕괴의 위기에 빠져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보수단체떨거지들까지 그에 합세해나서고있는 사실은 보수역적패당이야말로 이제나저제나 되살아날 틈만 노리는 지독한 악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천하의 악녀 박근혜의 집권 4년간을 통해 《유신》독재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은 후과가 얼마나 처참한가를 뼈에 사무치게 새기였다.

독초는 잔뿌리까지 말끔히 제거해버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다.

지리멸렬의 나락에서 헤여나보려고 단말마적발악을 하고있는 보수패거리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지 않는다면 박근혜《정권》시기와 같은 세기적인 치욕과 불행의 암흑시대가 또다시 재현되는것을 막을수 없다는것이 력사와 현실이 울리는 심각한 경종이다.

보수패당은 제명을 다 산 력사의 퇴물이며 이제 남은것은 민심이 정해준 비참한 무덤행밖에 없다.

피뢰보수패당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시시각각으로 조여드는 최후심판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질할수록 저들의 추악한 몰골만 날날이 드러내고 내외의 더 큰 비난과 환멸을 자아낼뿐이다.

남조선 각계층은 적폐청산이자 곧 보수청산이며 박근혜잔당들과 그 공범자들을 철저히 매장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개혁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더욱더 과감한 투쟁으로 초불민심에 도전하며 감히 머리를 쳐드는 추악한 보수역적무리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박멸해버려야 한다.

주체106(2017)년 7월 20일
평 양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기만적인 최저임금인상안 단죄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6월 30일 로동자들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최저임금인상안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4%의 래년도 최저임금인상안을 내놓은것에 대해 로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우롱한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성명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온갖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것처럼 억지주장을 하지 말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번 최저임금인상안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분분을 던지주며 선심을 쓰듯이 행세하는 재벌들의 경영자총협회는 로동자를 개, 돼지로 보고있다고 성토하였다.

비정규직철폐와 로동권보장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머니투데이》에 의하면 남조선의 로동운동단체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로총산하 로조들이 1일 서울의 곳곳에서 집회들을 가지였다.

4 500여명의 화물운수부문 로동자들이 참가한 집회에서 공공운수로조 화물련대본부는 로동자의 로동권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력대 《정부》들이 화물운수부문의 잘못된 제도를 바꾸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단죄하면서 민중의 안전과 로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주일반로조련맹은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철폐할것을 요구하여 집회를 진행한 다음 시내거리들에서 시위를 벌리였다.

금속로조와 공공운수로조의료련대본부도 집회를 가지고 로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로동조건개선과 피해보상 요구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민주로총산하 공공운수로조가 14일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려객버스운전사들의 로동조건개선을 요구하여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대형버스에 의한 교통사고가 계속 일어나는것은 운전사들이 장시간로동에 몰리우고있기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금 운전사들이 교대없이 하루 18시간씩 일하고있다고 하면서 운전사들에게 무제한적인 연장근무를 강요하는 업주측의 리윤추구가 계속되는 한 교통사고는 없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하루로동시간초과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울의 소리》에 의하면 한랑에서 일하며 혹악한 로동조건때문에 피해를 입은 남조선로동자들이 그 보상을 요구하여 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발파하는줄도 모르고 갱에 들어갔다가 죽는 사고가 계속되였지만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할수없이 그런 환경에서도 일을 해왔다고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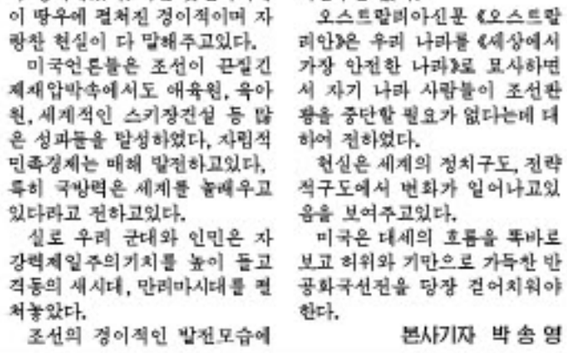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보상을 약속하고도 여러가지 구실을 대며 시간을 끌다가 최근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것이라고 통보하였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피해보상을 거부하고있다고 항의하였다.

수십년간 그릇된 규정으로 피해보상청구권행사를 가로막은데 대해 사과와 보상을 할 대신 오히려 억지론리로 아직까지 보상을 거부하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직권람용과 업무태만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으로 배포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인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가 17일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공식문건 A/71/977-S/2017/589호로 배포되였다.

로씨야상임대표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에 경고

나토주재 로씨야상임대표가 13일 로씨야-나토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나토의 군사적움직임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는 최근 나토가 《로씨야의 위협》이라는 구실밑에 동유럽에 무장장비와 기술기재들을 집결시키고 군사적움직임을 확대하면서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있다고 밝히고 로씨야국경에로 군사하부구조들을 접근시키려는 나토의 전략이 현실화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유럽에서 정치군사적상황이 심히 악화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로씨야는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며 자기의 리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꾸바인민주권민족회의 제재해제를 미국에 요구

꾸바인민주권민족회의 대외관계위원회가 11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금수조치를 걷어치울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성명은 그 누구도 꾸바인민에게 규정들을 내려먹일수 없다고 강조하고 꾸바는 민주주의와 경제, 정치, 사회제도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강요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나라에서 큰물피해

미국 시카고시에서 12일 많은 비가 내려 혼란이 조성되였다.

미국에서 큰물피해

무더기비로 전기선들이 끊어져 약 3만명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으며 도로들이 침수되여 교통이 마비상태에 빠졌다.

특히 북부와 서북부 교외지역의 형편이 심각하다고 한다.

한편 나이제리아의 중부지역에서 9일 큰물피해가 발생하였다.

큰물로 10일현재 11명이 목숨을 잃고 90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으며 약 500명이 긴급대피하였다.

현지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바다크샨주에서 8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로 3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부상당하였다.

또한 20채의 살림집이 무너지고 많은 농경지가 못쓰게 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서방의 반공화국선전은 완전한 허위이다

원자탄, 수소탄과 함께 대륙간탄도로케트까지 보유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는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 우리 나라의 사변적성과를 두고 세계가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있다.

외곡된 보도를 끊임 늘어놓군 하던 미국을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도 최근에는 조선이 최고령도자의 령도밑에 핵무력과 경제건설전반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으며 제재와 압력으로는 조선의 발전을 막을수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여러 언론들이 미국 등 서방나라 집권층과 어용나팔수들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선전의 허위성을 폭로규탄하고있는것이다.

우선 우리 공화국에 의한 《위협설》과 《도발설》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까밝히고있다.

미국잡지 《포브즈》와 프랑스월간잡지 《아프리카아시아》에 실린 글이 그 대표적이다.

《포브즈》는 《대통령 트럼프가 조선을 리해 못한다, 그의 무식은 전쟁의 방아쇠가 될수 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무장관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지역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의 확대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과장된 선전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한 정치철학가는 《아프리카아시아》 최근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무장관 틸러슨이 조선을 《세계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도대체 무슨 위협인가 하는것이다, 서방은 조선을 잔인한 독군으로 선전하고있지만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나라의 핵전략이 철저히 자위적이라는것을 쉽게 리해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조선의 핵은 침략자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한 억제력이다라고 하면서 조선에 뒤집어씌우고있는 호전주의는 사실상 《자유세계》즉 미국이 받아야 할 비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렇다. 위협과 도발, 호전성문제를 따지고든다면 미국이 문제시되여야 할것이다. 미국의 핵과 미싸일은 다른 나라들을 불의에 공격하여 세계제패를 실현하려는 야망의 산물이다.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원자탄을 거리낌없이 떨구어 두 도시를 페허로 만들었던 핵범죄자가 바로 미국이다. 당시 인류에게 핵참화를 들씌우는 야만행위를 감행한 미군장성들은 이것을 경축하기 위해 가정들에서 희희덕거리며 원자탄버섯구름모양의 과자까지 만들어 맛보는 추태를 부렸다고 한다. 1950년대 조선전쟁시기에는 지뢰탄, 소이탄, 세균탄을 포함한 각종 독탄들을 대량투하하여 우리 인민들을 살륙하고 온 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었다.

이런 미국이 우리 나라의 《위협》을 운운하는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오는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에 종지부를 찍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 자위의 수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두고 《세계적인 위협》이니 뭐니 하며 소란을 피우고있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것이다.

하기에 프랑스의 정치철학가는 글의 마지막부분에서 5차에 밖에 안되는 조선의 핵시험이 서방의 강렬한 분노를 폭발시켰지만 미국은 1 000회이상 핵시험을 진행하였다, 미핵항공모함들이 왜 조선반도로 가느냐는 물음에 그들은 조선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위반한 유일한 《불량배국가》이기때문이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주권국가는 국제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선은 NPT에서의 탈퇴를 당당히 선포하였다라고 그루를 박아 미국의 《조선위협설》의 부당성과 허황성을 단죄하였다.

다음으로 언론들은 미국이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써도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절대로 빼앗을수 없다는것을 객관적사실을 가지고 전하고있다.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인터네트홈페지에 조선의 핵무력강화는 나라의 전반적발전의 한측면이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조선의 전진을 막을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수십년간에 걸치는 미국의 반공화국제재압박소동이야말로 상상조차 할수 없는 전대미문의것이다. 말그대로 우리 인민의 생존공간마저 없애버리기 위한 반인류적행위이다.

그러나 미국의 그 어떤 정치적공갈과 경제적봉쇄책동도 우리 군대와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우리 공화국의 힘은 더욱 강대해졌다. 최근 몇년사이에 이 땅우에 펼쳐진 경이적이며 자랑찬 현실이 다 말해주고있다.

미국언론들은 조선이 끈질긴 제재압박속에서도 애육원, 육아원, 세계적인 스키장건설 등 많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는 매해 발전하고있다, 특히 국방력은 세계를 놀래우고있다라고 전하고있다.

실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격동의 세시대, 만리마시대를 펼쳐놓았다.

조선의 경이적인 발전모습에 대한 부러움과 경탄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펼쳐주시고 가꾸어오신 강국의 넘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흠모로 이어지고있다.

미국의 한 전문가는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나라를 세계최강국으로 건설하고계신다.》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핵무기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전략잠수함 탄도탄보유국으로 급상승시키신데 이어 또다시 이 행성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으로 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여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만가지 거짓이 한가지 진실을 이길수는 없다.

오스트랄리아신문 《오스트랄리안》은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묘사하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조선관광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현실은 세계의 정치구도, 전략적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반공화국선전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박 송 영

ㄱ-71114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